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illegible]

竹田宮殿下 海外現地御常勤務
關係官一同恐懼感激

【東京電話同盟】騎兵大尉에신 竹田宮恒德王殿下께서는 今番 海外現地 御常勤務를 하시게되섯는데 皇族이신 殿下와한가 任地에 赴任하시는것은 前例가 업는일로서 陸軍省及 宮內省關係官一同은 恐懼感激하고잇다
竹田宮恒德王殿下께서는 陸軍大學 御卒業後直時 御渡支二旬동안 戰線을 御視察하신後 去月十九日 御歸京 저우 翌日御參內하시고 同二十六日 午後十時半 東京驛御發 御途中 伊勢神宮 桃山御陵에 御參拜 御任地에 向하섯는데 그間 御母宮 昌子內親王殿下께서는 皇后陛下御差遣으로서 二十四日 東京御發 白衣勇士御慰問次 御渡滿하시고 又 光子妃殿下께서는 皇后御差遣으로서 各病院에 白衣勇士를 御慰問하시는外 恒常 皇軍將兵을 下念하사 고마우신 御仁慈를 내리시다 今番에는 各武官이 家族과 갓치 現地勤務에 一身을 바치고잇는 日常을 下念하사 殿下께서도 物資가 御不自由하시고 家族의 變化가 甚하신데도 不關하시고 任地에 赴하섯다고 承聞되며 現地에서는 極히 少數職員을 거느리시고 最少限度의 御日常을 지내실터이라고 承聞되다 이가튼일은 全혀 前例가업는바로 참으로 恐懼하온바이다 海外로 大陸에서 兩殿下의 御姿를 拜한 現地將兵은 기피感激하야 皇軍의 士氣는 더욱旺盛할것이다

竹田宮恒德王殿下 在滿某要職에御就任

【東京電話同盟】陸軍省八日正午發表 竹田宮恒德王殿下께서는 今回 在滿部隊의某要職으로 親任하시게되어 御赴任中이시던바 六月二十日御無恙하시게 御任地에 御到着하시엇다

閑院宮殿下御參內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八日午前九時五十分 宮中에 御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시고 御所管事項에對하야 奏上하시엇다

ンペコリフ

社說
明年度豫算編成을압두고
—節約節儉을爲主하라—

一

今番 新年度豫算編成期도 가차워오므로 政府는 八日 閣議에서 豫算編成方針을 附議決定하얏다는데 그 要領은 一、各省經費는 時局에 鑑하야 緊急한 經費에만 限할것 一、新規經費에 對하야는 各省다 가티 旣定經費의 節約에 따라 그 財源을 捻出할것 一、特別會計에 잇서서는 一般會計에 準하야 節約에 努力하는同時에 財政의 餘裕는 될수잇는대로 一般會計及 臨時軍事費의 財源에 繰入할수잇도록할것等이라한다。要컨대 長期戰에 對處하기 爲하야는 軍需品에 關한것은 不得已하나 闕後의 것은 될수록 節約하라는것이다。

二

今年度 一般會計가 三十億을 넘고 臨時軍事費 五十億圓까지 合하면 實로 八十億圓으로 空前의 膨大한 豫算임은 말할것도 업지만 朝鮮特別會計에 잇서서도 實로 未曾有의 大豫算이다。即 今年度豫算總額은 經常、臨時를 合하야 五億五百萬圓、昨年度豫算四億二千二百八萬圓에 比해도 約一億圓、明治四十四年度豫算 二千三百萬圓에 比하면 實로 二十倍의 膨脹을 보혓다。一般會計及 朝鮮特別會計가 모두 今年度에 드러 飛躍的 膨脹을 보힌것은 저 支那事變의 勃發한 原因이지만 朝鮮의 豫算이 最近 數年을 두고 大幅的으로 膨脹한것은 支那事變의 理由만이 아니다。初等學校擴充費、鐵道建設費、產金獎勵金、電信電話架設費等諸經費가 數年來 膨脹해진것은 數字에 歷歷하바니 今年度에 特히 나타난 數字는 臨時軍事費財源繰入金 一千七百萬圓뿐이다 그러므로 從來 經常費又는臨時費도 節約할수잇는것이 相當히 잇슬것임에도 不拘하고 惰性的으로 再編成하고 新規事業은 그대로 編成하얏기 때문에 今年度와 가티 五億五百萬圓이란 膨大한豫算을 現出햇스니 長期戰에際하야 軍需豫算이 膨大히 要求되는 今日 剩餘의 緊急치 안흔豫算은 節約함이 適當할것이다。

三

私鐵에의 補助、水利事業에의 補助를 減하고 人件費、事務費를 節約하며 冗費를 節約하라는것은 吾人의 年來의 主張이어니와 特히 今日과가튼 戰時下에 잇서서는 前記諸經費의節約 平和產業에의 補助減少는 絕對的이다 往往히 民間에서는 官廳經費엔 個人經濟에 比하야 節約이 적다는 評이 잇거니와 豫算이 通過되엇다고 當然히 節約할것도 안는 例가 間或잇음은 周知의 事實이다。勿論 明年度에는 經濟警察制度實施、其他 戰時로 特設할 制度때문에 臨時費가 增加하고 今年度豫算에 比하야 絕對額에 잇서서 增大를 豫見할것은 勿論이지만 實어나 從來의 豫算面에 節約할 餘地가 잇는것은 今年度豫算中에서 三千萬圓을 節約하겟다는 事實을 드러도 짐작할수잇다。그러므로 明年度豫算編成에 잇서서는 緊急 必要한 經費以外에는 節約을 爲主하야 長期戰下의 財政政策에 遺憾이 업게할것이다。

物價取締規則公布
適用物品(十四種目)指定
從來보다罰則을加重

【東京電話同盟】現在物價對策 中央機關으로서는 中央物價委員會가잇고 同委員會는 綿製品、皮革製品、고무製品、工業藥品等의 標準販賣價格을 決定하엿는데 그法的根據로서는 暴利取締令이잇는데에 不過하며 右暴利取締令에는 罰則規定이 자못不充分하야 取締가困難할뿐아니라 더욱販賣價格을 積極的으로 引下하려면 一層强力한 規定이 必要하므로 今回輸出入臨時措置法에基하야 『物品販賣價格 取締規則』을 制定하야 物價統制에 萬全을 期하기로되여 九日官報로 右省令을公布하고 即日施行하기로되엿다 또 罰則規定은 暴利取締令에依하면 三個月以下의懲役 또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으로되여잇스나 今後는 輸出入臨時措置法에基한 罰則이 適用되여 一個年以下의懲役 또는 五千圓以下의 罰金이 適用되기로되여잇다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物品販賣價格 取締規則第一條의 規定에따라 左의十四品目을指定하고 本規則을適用키로되야 九日附로써 表示하고 또綿製品皮革製品에對하여는 이미輸出入臨時措置法에따라 各各纖維製品販賣價格取締規則이 制定되여잇스므로 本規則中의製品으로부터 除外되여잇다 麻製品輸入材及 그製品고무製品、松脂、젠락크·아라비야고무、桐油、가기에포락、亞鉛華鉛丹리찰唐土、石炭酸、硼砂

고무製品制限省令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고무의 軍需品으로서 供給確保와 輸出振興의見地에서 고무製品의使用制限、配給統制와 고무靴의販賣制限을 行하기로 決定輸出入臨時措置法에基하야 이에關한省令을 九日官報로써 公布하야 即日實施하기로되엿다

米國松도販賣制限!

【東京電話同盟】建築業者에게 업서서는 안될 米松은 從來專혀 아메리카로부터 輸入되엿는데 內地材中에는 어 代用品이 적고 더구나 그輸入은 今後益益 困難하게되엿스므로 商工省에서는 米松販賣制限을 行하게되여 輸出入臨時措置法에 基하야 米松販賣取締規則을 制定하야 九日官報로서 公布하고 即日實施하기로되엿다 이에따라 軍需其他公共用의 需要를除하고 民需用의것은 商工大臣의 許可를 엇지안으면 販賣하지못한다 省令施行當時 벌서 契約이끗난것이라도 引渡未了의것은 許可를要하고 또한번 許可를 어든것이라도 다른用途에 轉用할때에는 許可를 要하기로되엿다 또古材에對하야는 勿論 許可의必要가업다

▲米松取締規則

第一條 米松(기리二米以上의것을除함、以下同)은 商工大臣의許可를 밧지안으면 이것을販賣(本則施行前에한 契約에依한 引渡도包含)하지못함、但官廳의 法文에 依한때에는 此限에不在함

第二條 前條의 許可를 밧는者는 左의 事項을 記載한 許可申請書를 商工大臣에게 提出할것

一、買受人及 使用者의氏名、名稱及住所
二、用途
三、種類別 數量及價格
四、受渡豫定時期
五、使用者請負人이때에는 注文者의氏名名稱及住所
六、買受後製材하는者는 製材하는者의氏名、名稱及住所
前項의 許可申請者는 使用者를連署할것

第三條 米松使用者는 商工大臣의許可를 밧지안으면 前條의 許可申請書에 記載한 用途以外의 用途에 當該米松을 使用함을不得함

優渥한勅語奉戴
南總督諭告發付

諭告

惶恐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事變一周年인 七日로朝野一心이된 銃後의態勢 一로 祖宗의 遺烈을 承하사 乾德四表를 光被하옵시는 天皇陛下의 大稜威에 由치아니한것이 업다 그러나 今番事變의 目的達成을 爲하야 益益國家의 總力을 내일 所以를 昭示하옵신 勅語를 下賜하옵신 優渥하옵신 勅語를 賜하옵신 [illegible] 支那事變一周年에際하야 惶恐하옵시게도 優渥한 勅語를 下賜하옵신 恐懼感激하옵 [illegible] 昭示하옵신바 因하야 南總督은 그優渥하옵신 勅語의 御趣旨를 奉戴하야 七日付로써 全半島官內官民에게 如左한 諭告를發하야 聖旨의 徹底를 期한바잇섯다 [illegible] 一致結束에依하야 萬難을 排除하고 [illegible] 期하기를 期한다

昭和十三年七月七日
朝鮮總督 南 次 郞

第二回論功行賞 十二三日頃發表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의 第二回論功行賞은 賞勳局에서 [illegible] 協力하야 [illegible] 進行中이든바 요사이 거의 [illegible] 되엿스므로 [illegible] 밧자와 오는十二三日頃 [illegible] 인데 今回도 前回同樣으로 中支北支에서 名譽의 戰死를 [illegible] 軍約二百名 [illegible] 約六十名에 對하사 [illegible] 의 [illegible] 附게 [illegible]

第四條 米松의 [illegible] 每月十日까지 前月中 [illegible] 現在의 [illegible] 商工大臣에게 [illegible]

附則

本則은 公布한날부터 此를施行함、本則施行에際하야 現在米松의販賣를 業으로하는者는 本則施行의날부터 二週間以內에 現在 [illegible] 商工大臣에게 [illegible]

硫安增產配給法
施行令十一日公布

【東京電話同盟】지난第七十三議會에서成立한 硫安增產及配給統制法은 오는十一日부터 施行되는데 各施行令에關하야는 關係當局에서 [illegible] 意見一致를 보앗스므로 同時에 十一日부터 [illegible]

工作機械製造事業法
九日公布十一日實施

【東京電話同盟】지난第七十三議會에서 成立한 工作機械製造事業法施行令은 九日公布하고 同十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八日의定例閣議는 午前十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 [illegible] 下 全閣僚出席(池田藏相은缺席)하야 먼저 [illegible] 明年度豫算編成方針에 對하야 [illegible] 이잇슨後 그것을承認하고 다음 [illegible] 法相으로부터 司法制度 [illegible] 等에 關하야 報告가잇섯고 末次、永井、有馬各相으로부터 [illegible] 의 狀況에 對하야 報告가잇 [illegible] 同十一時十分에 散會하엿다

板垣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板垣陸相은 八日午後五時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拜謁 所管事項에對하야 奏上 어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하고 御前을退下하엿다

定例參議會
每週火曜日로還元

【東京電話同盟】定例內閣參議會는 參議會發足以來 每週水曜日에 開催키로 變更되엿스나 政府側의 事情으로 還元하야 每週火曜日首相官邸에서 開催키로되엿다

上海工部局에抗議
租界治安維持에關해

【上海八日發同盟】日高參事官은 七日테로事件에 關하야 昨夜保安에 工部局市參事會에 租界當局에서 今後治安維持에 對하야 다시慎重한對策을 講究하야 그根絕을 期할것을 要望한다는 旨의警告的抗議를提出하엿다 그리고 이에對하야 工部局當局으로부터의 回答如何에따라서는 我方도 適當한 對策을 考究할 必要가잇스므로 八日午前中總領事館에 日高參事官以下 各關係官이 會合하야 今後의對策에 對하야 慎重協議를 거듭하엿다

工部局警察의 無力不誠意暴露

【上海七日發同盟】今朝의 爆彈事件은 全部共同租界에서 이러난일인데 全部日本人을 目標로 無辜한市民을 殺傷한것은 鬼畜과도가튼 惡虐行爲로서 今回의 테로리스트의 暴動計畫은 佛國租界內에 本據를두고 支那側最高指揮部의 命令에따라 極히計劃的으로 行한것이며 我軍의 上海佔領後最初의 大規模이므로 我陸軍及領事館當局을 極度로 憤慨케하고잇다 今日의 테로計畫은 미리부터 發覺되엿는 바로서 工部局警察은 當然充分한 警備를 하야 未然에 이것을 防止하여야 할것 임에도 不拘하고 何等積極的處置를 講究치안코 彼等不逞分子의 [illegible] 을 그대로 [illegible] 當局의 [illegible] 그 [illegible] 한것이므로 我現地 軍部와外交 當局은 租界當局에 對하야 嚴重한 抗議를하고 [illegible] 는 租界肅正을要求하야 斷乎한處置에 나오것이라고 觀測된다

山西山岳地帶 敵軍大動搖

【石家莊八日發同盟】我〇〇部隊 正面에서 頑强히 抵抗하는 敵은 新絳、侯馬鎭、曲沃前面으로부터 東梢村、襄汾을 連結하는線 百三十四里에 亘한 山岳方面에 極히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고 中央軍十五、十四、六十의 各師가依據하야 頑强한 抵抗을하고잇는바 五日午後四時를 期하야 行한我〇〇部隊의 總攻擊開始以來 어느듯 敵陣은 動搖되여 七日午正에는 其一部가 崩壞하야 我方에게 突破되며 全線에 亘하야 動搖의빗치 濃厚하다

垣曲渡河點에肉薄

【石家莊八日發同盟】〇〇方面으로부터 垣曲을 目標하고 西進하는 高木部隊의 猛進擊으로 敵은退路가 切斷될것을 두려워하야 垣曲附近의 黃河渡河點을 確保하고저 該方面에 數個師를增加한바 高木部隊는 七日朝來어 敵을 猛攻하는中으로 漸次敵을 壓迫하야 垣曲渡河點으로 肉薄하고잇다

白耳義政府內에서
滿洲國承認機運

【東京電話同盟】獨伊兩國의 滿洲國承認과 最近의 滿獨修好條約及 日滿伊通商協定의 締結을通하야 獨伊兩國과 滿洲國과는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益益密接한關係를 加하여왓는데 最近極東에 多大한 利害關係를 가지고잇는 白耳義에서도 對滿通商을 增進하기爲하야 滿洲國承認을 行하려라는 要望이 倍加하고잇는 白耳義에서도 對滿 [illegible] 의 [illegible] 同氏는 『白耳義政府가 依然 滿洲國 不承認의態度를 持續하는데 잇서서는 極東에서의 利權은 第三國에 奪取될것이다 그러므로 速히 白耳義 政府는 滿洲國을承認 하여야할것이다』라고力說하엿는데今後의 白耳義政府의 態度가 注目된다 [illegible] 昨年極東視察後 東亞의新事態에 對한 認識을새로히한 白耳義上院議員 돌로드氏는 去月本上院 [illegible] 速히外交委員會를 召集하야 支那事變을 契機로發生한 極東의 新事態에對하야 重大한利害關係를 가지고잇는 白耳義政府는 [illegible] 有效한外交手段을 取할것을 外相에게 要望하는動議를提出하엿는데 지난五日에열린 上院外交委員會에서

司法法規改正委員會

朝鮮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는八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illegible] 다시 [illegible] 一兩日中에 再入京歸東할豫定이다 [illegible] 事業을繼續한後 [illegible]

"綿製品特例는考慮
需給統制等은內地대로"
穗積殖產局長歸任談

產金振興會社設立委員會出席을兼하야 物資調整協議次로 渡東中이든 穗積殖產局長은 大阪으로부터 別府를 經由 八日『아가쓰키』로歸任 當面의 諸問題에關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綿業問題

朝鮮에는 特殊한 事情이잇슴은 틀림업스나 最近 情勢의變化는 特殊事情을 理由로 버틸수는업게되엿다 愼重하게 檢討하야할 말로 特別取扱을要할必要가잇는것 外에는 內地에順應하여가지안호면 안된다 朝鮮에는 綿布의 輸出도업고 在庫品도 적으므로 軍需及 第三國으로가는 綿布를 除하고 全部禁止한다면 業者의 破滅、一般需要者의 困難도 內地보다 酷甚한點도 잇스므로 어느程度의 餘裕는 認定하기로 되여잇다 綿業의 內外地協議會에는 出席치하게되여 資源課長에게 一任하고왓는데 歸任을 기다려 具體的으로 決定하려한다 內地에 在庫品이 업서지기까지 는 朝鮮에서 生産하므로 朝鮮만混紡을 許할수업지안흔가 로 朝鮮은 綿製品을 禁止하지 안는다는 理由는 서지안는다

價格問題

漸次內地와 步調를 마추어가도록 하지안흐면 안된다고생각한다 넘우천천히할수도업스니 財務局과 資源課에서도 愼重하게相談한後 物品에따라 適當한公定價格을 決定할작정이다 配給統制、使用制限等도 大體로內地와 가티 하여가려다

轉業補償問題

新物資動員計畫으로 朝鮮에도 轉業助成、失業救濟를 必要로하게되는것이 相當히만흘것은 必然한데 失業救濟는 比較的簡單히 되여도 轉業은 어려운 問題다 朝鮮에서는 적지안케 困難한業態가 생길것인데 어떠케 救濟하고 補償이 問題이다 軍部와도 協議하지안흐면 안되것다 朝鮮에도 나누어볼생각이다 第一既設업는 小商業家의 打擊이 甚할것이다

圓블럭輸出制限問題

當局堅持의 立場으로부터의 制限이므로 支那貿易은 不得已한것이다 日滿北支貿易進出計畫을 세웟든것인데 困難하게되엿다

產金會社

關西方面을 다어올린것이아니다 十月부터 開業하게되기를 바라지만 重役陣은 吉野商相에게는 腹案이잇섯겟지도모르나 池田新大臣은 自紙상태에 되겟스므로 一人도內定되지아니하엿다 設立委員會에서는 그것까지는 決定되지안엇다

永持造兵廠長官 北朝鮮工業視察

陸軍造兵廠長官永持中將은 長谷川大佐以下를帶同 五、六兩日 日本高周波重工業城津工場을 視察

內鮮一體觀念은
歐米流植民地觀念과判異
定例面會席上南總督談

南總督의 民意를 聽取하는第十一回의 定例面會日은 八日午後三時부터 總督官邸에서 開催되엿는데 東亞連盟協會長 惣國府 林武雄으로 對하야 京城新橋町五의 小森宗平氏의 이야기가잇슨後 森成羅盟의 文永杳氏는 『內鮮一體의 世界史的意義』라고 題하야 熱辯을吐露하야 神道普及、朝鮮語廢止論까지 徹底한 日本化를 約三十分동안 力說하고 京畿道道會議員 朴宗天太氏는 時局下의 生活再建을 强調하야 敎化事業의 具體的方針을 建議하엿다 最後에 元民族主義團體 興士團에 加盟하야 民族主義運動에 奔走하다가 今次事變을 契機로 하야 過去를 淸算 轉向을 聲明한 李光洙、李鐘麟 [illegible] 同李甲求 協成女子商業學校長 李秉華과 車相瓚四氏는 모두가 內鮮一體運動에 參加하겟다하고 그實踐을 爲하야 上海公部大學에 李秉華 [illegible] 基昇氏는 長年支那에 居住한經驗 [illegible] 라고 感激하야 支那民衆의 指導에對한 意見을 述하엿다 南總督은 이에 對하야 [illegible] 以上을 總括하야

驗으로 今次事變에서 皇軍은 支那의太半을 占領하고占領과同時에秩序가維持되여 建設이 開始되여 잇다 이에對하야 支那民衆은 얼마나 感激하고잇는가

一、林業의 保護助成에 對하여는 充分히 考慮하야 山火의 防止는 勿論 植林의 勵行等에 어르키까지 注意할것으로 忠北과 가튼것은 金知事의 努力에 依하야 非常한成績을 올리고잇다

一、國語는 普及시키라 그러나 朝鮮語를 廢止할 必要는 조곰도 업다 自然히 國語가 普及하면 問題가 解決된다

一、生活再建은 至極히 조흔 이點도 昨日結成한 朝鮮聯盟의 活動에 크게期待를하고 잇다

一、內鮮一體의 觀念은 歐米流의 植民地觀念과는 全혀 意義를 달리하는것으로 往往이 英語敎育을바든 사람들 사이에는 歐米流의 植民政策을 그대로 生覺하는者가잇는것은 甚히 遺憾千萬이다 植民地 云云하는者는 打殺하여야할것이라고 分明히 生覺하야 주기를바란다 內鮮一體는 數千年의 血과 肉의 結合에따라는 것이다 明治十五年頃에는 北海道民이란 말이잇섯는데 內鮮一體라는 말도멀지안어 消滅의 時期가 올것이라고믿는다

一、半島에잇는者뿐아니라 內鮮一體는 外務大臣을通하야 在外公館에도 通牒하엿스며 同時에 조금도 差別하지안키로 하엿다 鮮人의區別업시 日本에 忠誠할 것을 要望한다 [illegible] 로부터 熱心히 世界를 [illegible] (寫眞은 南總督)

上香港總督 軍政權을掌握

【香港八日發同盟】英政府는 極東의 事態에 對處코저 一九一七年二月公布된 植民地條令에 基하야 香港總督에 對하야 軍政、民政兩權을 賦與키로되야 노ー스코트總督은 昨七日부터 陸海空軍의 最高統帥權을 掌握하엿다

米軍部、比島에 空軍增强計畫說

【紐育七日發同盟】極東의 事態가 進展함을 따라 比律賓獨立延期論이 마크너드比律賓高等辦務官을 爲始하야 米國政界의 一部에서는 漸次有力化하고잇는바 七日 U·P華盛頓支局의 報道에 依하면 獨立延期에伴한 新事態를 豫想하고 比律賓陸海軍의 空軍施設增强案을 考究하는中이라고傳하는바 U·P通信社의 報道要旨는 如左하다

軍事當局은 比律賓獨立이一九四六年以後로 延期될 境遇를 豫想하고 目下 比律賓에 强力한 陸海軍의 空軍根據地를 建設할 豫定案을 考慮하고 잇다 軍事專門家의 意見으로는 現在比律賓을 防衛함에는 比律賓空軍을 擴充하는것이 時機에 適合한 案이라한다 空軍이면 獨立實現後에도 容易히 米國本國으로 撤廢할수가 다잇고 根據地는 新裝備에 證用이 될 며 獨立實現後에도 移動할수 업는 不便이잇다 但 米比合同準備委員會는 獨立延期에反對的態度를 보이고잇다고한다 議會도 果然 獨立延期에 同意할는지 어쩔는지 매우 疑心되며 따라서 比律賓防備擴充案도 最後的 決定을 中止하지안흘수업는 事情에잇스며 마크너드高等辦務官의 獨立延期論도 또한 悲觀하기 어려운 勢力을 가지고잇서 軍事當局은 比律賓의 防衛에 萬全을 期하고저 世界最强의 空軍根據地를 計畫을 考慮하고잇는데 一方議會內에서는 此際比律賓의 防備를 强化하는것은 日本을 刺戟하는것이 될넌지 몰라 이에 反對하는論이 만타

敵의計畫挫折
京漢線破壞하려든

【石家莊八日發同盟】支那側은事變一週年記念日을 期하야 我後方을 攪亂코저 七日我交通網의 破壞를 企圖하엿는데 모두가 我軍때문에 擊退되여 支那軍의平漢線破壞의 意圖는 다시 挫折되엿다

一、邯鄲方面에서는 約二、三百의 支那兵이 鐵道通信網을 破壞코저 來襲하엿스나 我守備兵때문에 擊退되고 多數의 武器死體를 버리고 東南方으로 潰走하엿다

二、彰德南方湯陰附近에서도 七日午前三時頃約 一千의 敵이 襲擊하야왓스나 〇〇部隊때문에 大打擊을 밧고 潰走하엿다

下元中將歸還

【神戶電話同盟】北支各地에 轉戰 赫赫한武勳을 세운 下元熊彌中將은 八日午前七時半 神戶入港의 日滿連絡船吉林丸으로 歸還 同十一時午前 船黃金丸으로 大阪에向하엿다

人事·集會

◇南田夢子夫人 (第二十師團司令部附參謀南田多左少佐夫人) 七日別世

本社辭令

(七月六日付)
主筆 李 勳 求
兼任出版部主幹

三、[illegible] 人事에 對하야 特別規定을 [illegible] 必要가업는가
四、戶主의 [illegible] 에 對하야 [illegible] 規定을 [illegible] 必要가업는가
五、[illegible] 의 制定을 [illegible] 規定할것이냐 [illegible] 자 그렇지라면 民法規定에依하는바 [illegible] 라고 [illegible] 하다 別로 規定할것인가 出家 [illegible] 에 依하지안는 [illegible] 三件

一、[illegible] 의 [illegible] 을 主眼으로하야 左의 [illegible] 라 오는十九日에도 [illegible] 할터이다 그러나 [illegible] 任務에對하야 [illegible] 委員長大野政務總監을 [illegible] 人事가잇슨後 [illegible] 委員長 [illegible] 하엿는데 [illegible]

夕刊後市況 八日

◆各地期米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三·五		三·五
釜山	—		三·三
群山	三·三	三·五	三·三
木浦	—		三·三
下關	—		三·三
名古	—		三·三

◆各地商品後引◆

	當限	先限
大阪人絹	六·五〇	六·五〇
福井人絹	八·三〇	八·〇〇
橫濱生糸	七·〇〇	七·〇〇

003419

당신의어린이들의 胃腸藥 베ー비ー散

小兒健胃整腸劑 べーピー散

오래분의 애기네 중에는 胃腸을 傷하야 食慾이업고、泄瀉하는분은 게시지 안슴니까。
貴下는 애기네의 胃腸藥 べーピー散을 아르시는지요? べーピー散은 애기네를 애게만 使用하는 胃腸藥으로서 今回에 發賣한 最新藥이오。 그 多少專門的이되나 安心하시고 애기에게 服用시키기爲하야 本劑의內容을 公開하겟습니다。

ガ ル コ ン……タンニン酸ゼラチン과 ベンツオナフトール 라는 二種藥이 化學的으로 結合한 藥인바 タンニン酸ゼラチン은 徐徐히 泄瀉를 ㄱ치게하는 作用과 泄瀉로 因하야 惹起한 腸粘膜의 糜爛을 防止하는 作用이 잇슴니다。從來의 泄瀉治療藥은 此를急히 ㄱ치게하는 藥이엿스나 泄瀉를 急히 ㄱ치게하는 것은 極히 危險한 것입니다。
그러냐 ㄱ하면 泄瀉를하는 때에는 반드시 腸속에 惡한 物件이 잇는것인바 急히 泄瀉를 ㄱ치게하면 腸속에는 언제까지든지 惡物이 殘在하야 身體를 爲하야 나븐 結果를 惹起하는 수가 종종잇슴니다 此等事를 생각하면 タンニン酸ゼラチン은 徐徐히 泄瀉를 ㄱ치게하는 藥이라고 말할수잇슴니다
ベンツオナフトール는 腸內의 惡物을 消毒하는 作用이 잇슴니다。
アルシリン·ウイス……腸內의 惡物을 吸着하고 病原菌을 殺滅하는 作用이 잇는 同時에 泄瀉를 徐徐히 ㄱ치게하는 作用이 잇슴니다。
アスターゼ……胃의 消化力을 補助하야 消化不良을 治療하는 作用이 잇슴니다。
マグネシア……チアスターゼ의 消化力을 强케하는 作用이 잇슴니다。
コリゲン……ビタミンB와 アミノ酸을 包含하엿슴니다。 여쭐것도 업지마는 ビタミンB와 アミノ酸은 榮養劑로 使用합니다。 胃나 腸을 傷하면 반드시 榮養이 나쁨니다。 어가튼 때에는 ビタミンB와 アミノ酸이 꼭 必要합니다。
べーピー散은 以上의 藥品을 責任잇는 藥劑師가 調製한 藥劑인바 小兒專門의 健胃整腸劑로서 實로 優秀한 藥입니다。
時候가 조화저는 때에따라 胃腸病도 增加합니다 사랑스러운 애기네가 걸리수엿는 데로 病에 걸리지 안토록 注意에 注意를 더하십시오。
べーピー散은 다음과 자튼 病에 効力이 엿슴니다。
一、小兒가 急히 泄瀉하는때 又는 恒常 軟便을 보는 境遇
二、大便이 냄새나고、거품이 나는 粘液이 混合하는때
三、애기가 食慾이 업는때
四、먹는것을 吐하거나 消化되지 아니한 大便을 보는 境遇

藥價 參包入 二十錢 五包入 三十錢 九包入 五十錢 二十包入 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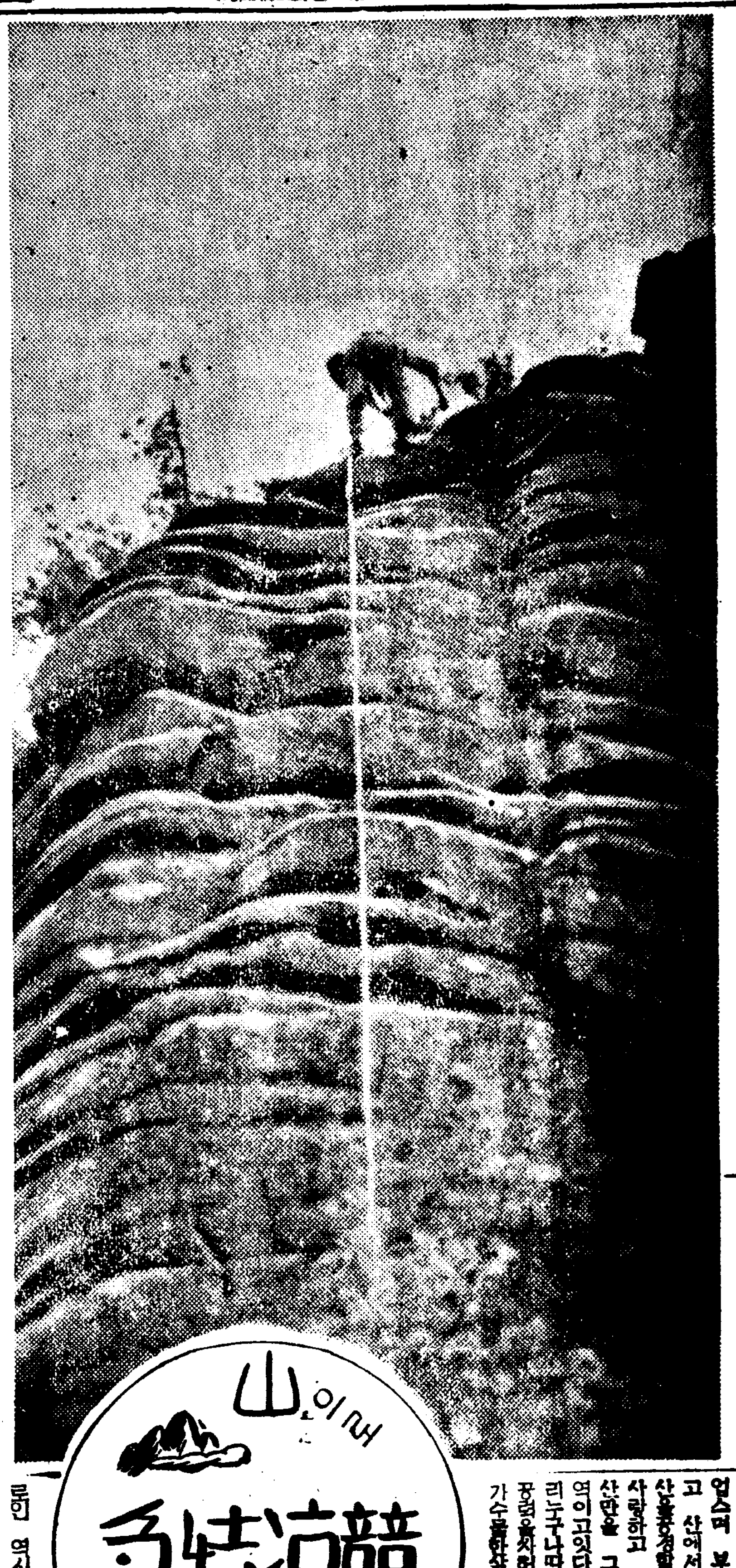
發賣元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代理店 朝鮮賣藥株式會社 京城府金町二丁目 / 株式會社 同和藥房 京城府和町

全鮮藥店에잇슴니다品切時에는直接發賣元又는代理店에注文하시오

石耳따기卅年間 職場은千仞絶壁

獨身山居三十餘年山의哲人의懷古談

山班 第一站 毘盧峯 ② 文 愼弦重 寫眞 姜大眞



금강산봉에서 자라나서 금강파 거처먹고 금강과 가치자고 금강과 가치출을하면서 석이따기로 일생을보내다는 영봉의 주인공을 우연히만난기자는 작약하야 그를따라 구룡연(九龍淵)지경의도판서다 그곳으로 그리서 다그리지못하고 굴로써서 다섯자못하고 노래로 읊조리다 읊조리지못한 대금강의 위대한 모습을 모지러진 기자의 붓끄트로 섯불리 며다가는 벌을그리다 게가되기 십상일것이다 미려 조처를하고시며 기자는 이 「석이」따는 사나이의 금강생활 삼십년기록을 약소하게라도 옮겨 금강영봉의 냄새를 히미하게나마 마저보려한다 (玉流洞)계곡을끼고 배워ー스통 산길을 더듬어거르면서 그와더부터 비업만업 말동무고바더가며 그의생활기록을 엿들엇다

◇……◇

그는 금년에 쉰한살 낫는때 그가 어릴장에 연산하기는 실로 홍안소년의 열아홉살때이라고한다 유구한 대자연과 비하면사람의 생애란 면이서 그가 영산을 찾저온지 삼십삼년으로 「석이」따기를 시작한지는 수물한살나면 헤이라고 하니 지금까지 삼십년동안을 이 산속에서 「석이」를 따고 살은것이다 그는 집도절도업고 처자도 업스며 부모도모른다 산에서자고 산에서먹고산의풍속에 안겨 산을중경하느를이다 그는산만을 사랑하고 산만을두려워하고 이 산만을 그의마지막가는리전으로 여이고잇다 석이폿따는것도취사리누구나따는것이아니라 이것도 공덕을쌔허배워야만된다고한다 그가수물한살되던해 석이잡따는선생을만낫는데 그는 김론인으로 어 김론인 역시 현재의 그와가티 산에서나서 산에서자라 석이를 따먹고 일생을 보내다가 삼년전에 일흔셋살을한생으로 산에서죽엇다고한다 그는 김문인을바라 맨처음으로 석이따기를 배우려가던 삼십년전 그때일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잇다 떠나기전 일헤동안을 김론인의 지시에따라 어른제배 통이든기전에 정서울(淨山禮)미며서 맑은 정수(淨水)를떠 다노코 산에 치성을드렷던것이다 이리하야 김론인과 그는여름철어느날 열흘작정하고 쌀한말을짊머지고 길을떠나 어제는업서진 송림사(松林寺)의 꼴자기로들어가서 송림굴(松林窟)큰 맨바위미테 섬짝으로막을치고 이곳을 동부침자리로삼고 충암절벽을 라고도는 석이따기생애의 첫시련을 시작하엿던것이다 까지세운듯한 노픈절벽을 엽는길을여지로 차저서오르다가 길이업서지면 나무가지를 잡고라고 올라가서 절벽낭떠러지까지 올라가 절벽낭떠러지념어 밧줄을매고 이것을타고 내려서기가어떠케나 무서웟든지 내리다가 못내리고 몃번이나 망서리던그 광경을 사방도히려 몸서리가 치는드시 이야기한다 출흘리고 다듬다듬 멧해가 지나되는 그미름나리다보면 눈이아찔해지던그때 선생의추상가튼 호령소리에 저윽히 마음을가라안저 가까스로 청운산만을 넘어서다고한다 그의 이처시련의 열흘동안을두고 서로는 숫씨로 석이를만진어 석이나넘어서 마음지엇던 석쪽에 석이를 가득너허지고그 의처거룩은 흥분한기쁨을 세우고돌아왓다

=사진은 홍치도=

◇……◇

그는원래 강원도평강군(平康郡)유진면 어느농가에태여난 홍치도(洪致道)란사람으로 순진한 농사군이엇섯는데 그가 열아홉살되던해에 한말(韓末)의 개명(開明)바람은 그의고향에까지불어와 그때로서는 큰모험이엇던 머리를깍고 일진회(日進會)에가입하야 신학문을 배우려고햇섯다고한다 그러나 그의운수는처음부터 불우하야 삭발한지 며칠이못되여서 의병(義兵)난리가 이러나서 그의산골에서도 머리깍근사람이 모주리비해를 당하게되자 그는의병들의주격을바더 저고리 겨드랑미트로 총알이 돌코나가는 위기일발의 사선을돌파하야 도망해온것이 그의 고향으로부터 일백여리되는 이 금강산의 장안사(長安寺)이엇다 그때 장안사에는 『일운스님』이란는 노장이잇서 중이되라는 권고를 바덧스나 팔은안해도 고향에 젊은안해를노코라 참아 이권고를 밧지못햇든 모양이다 그러나 그가 그후 삼십여년동안 세상에를 나가지안코 이산에 파뭇처서 흥풍으로 출가아닌 출가승의 생애를겪고잇는 그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가 금강산으로 드러오저 삼넘던에 청우가지고온 노수삼십원을 다엽새고 그가 수궁한삼때에 그의고향으로 일단돌아가기는 하엿스나 그가 젊은가슴에 그리고 잇던 고향에 다시금 발을 들여노핫슬때에는 그를 기다리고 잇던 것은 그를 사랑하는 안해가 아니엇더고한다 그가 고향에 돌아갓다가 한을만고닫은다리를 수이지도안코서 그길로다시금 이산중에를 아와서 이래삼십여년동안 석이를따며 흥은나무도하고 버섯도 따고 산삼도캐면서 이산에서저산으로 장안사에서 표훈사(表訓寺)로 유점사(楡岾寺)근방에서신계사(神溪寺)로 구르며 인생을 비웃는 산의표랑을하며 스스로귀의가되여 차즌것이엇다 미아저의 마음을 묵정것고 기자 그의안해와 그에다란 하나 잇섯다는 어린딸의 뭇소식을 엇더니 그는여시무표정한얼굴로 『안해는 다른데로 개가햇다할은 둘어사오니까 딱자식으로 르겟사오니까』

=사진은 석이딸처인으로 절벽낭떠러지에서 출을느리고=

山이여 바다로 競凉特急 (六)

官公廳關係諸工事에 憂鬱! 中止의大旋風

博物館專賣局廳舍等各新築物殆挫折

總督府、物資節約에率先垂範

회기적물자총동원계획에 따라 조선내의 물자절약계획은 대야(大野)정무총감의 귀임과함께 급속히 구체화하야 방금 재무국이중심이되여 각반의 사업에대하야 예의검토를하고잇는데 그중에도 방금공사를 진행하고잇는 총독부관계건축물에 대하야는 솔선하야 모범을 보히기로되여 총독의 선언되공사중지를 비롯하야 벌써 기초공사에착수한 시정이십오년기념종합박물관(공비사십만원)의 중지는 거위결정적이고 전매국청사(삼십만원)과, 평양전청사(삼십오만원)과 여박게도 각학교 시험장등 공비의 대소를불구하고 물자수급관계의것과 공사진행상황에의한 준공이 아직멀은것에대하야 전반적으로 철저한자재의 소비절약단행의방침이다 게약에따르는 손해의 배상문제등이 예상되는 때문에 이점에대하야는 회계과와 재무국사이에 신중심의를하야 가급적 속히 구체안을 확립할터이라고한다

損害總額一億圓 死傷者三千!

兵庫縣大水害의決算

【神戶電話同盟】 팔일 오후두시현재 병고현(兵庫縣)경찰부에드러온 보고에의하면 이번수해에 죽은사람이 삼백오십명 부상자 이천백구십이명, 행방불명자가 삼백구십칠명의 다수에 달하엿다 이 바게에도 행방불명이 사오백명이나 될모양인데 죽은사람과 행방불명자실수가 일천명을 돌파하리라고한다 그리고 당국에서 조사한 피해총액은 일억원이 넘을모양이다

平元線內洞↑↓順干 不日間着工

二個年後에完成豫定

철도국에서는 평원선공사(平元線工事)서부내동(西部內洞) 순간(順干)사이의 오키로 철로파 순간 거찬(巨贊)사이의 오키로 일운파 거좌 천을(天乙)사이의 오키로합 십오키로 세공구(工區)의공사착수에따라 오는 십일일부터 순간 거차에 공사구를 설치하기로하엿다 평원선은 경의선(京義線)서포(西浦)를 기점(起點)으로하야 청룡(靑龍)에 이르기까지 일백오십칠키로사분의 서부(西部)와 함경선(咸鏡線)고원(高原)을 기점으로하야 청룡에 이르기까지 오십오키로 사분의 동부(東部)로 합계 이백십이키로팔분인데 양편(兩便)동부는성내(城內)까지에 이미 개통되엿스며 이평원가운데서 가장 공사하기 어려운곳이라는 천성(泉

李泳根君渡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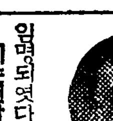
倫理學專攻次로

李泳根君

금춘연전(延專)문파를 졸업한 이영근(李泳根)(二十)군은 팔일오후두시삼십분 경성발차로 미국에 건너갓는데 군은 미국『조지아』주『에모리』대학에서 윤리학(倫理學)을 전공하리라한다

京大講師李升基氏 助教授로昇任

三十四歲篤學者



경도제국대학(京大)화학연구소강 사이승기(李升基)(三四)씨는사입부로동연구소 조교수에 임명되엿다 씨는전남담양군 창평면(潭陽郡昌平面)출생으로 경성중앙고보(中央高普)와 송산(松山)고등학교를거처 소화육년 경대공화부 공업화학과를 마치고 이어서 다(多) 앵전(櫻田)부교수의지도아래 섬유소(纖維素)에대한연구를 하다가 소화십년에대 강사가되고 이번도다시 조교수로승진된것이라고한다

滯貨輸送에 新羅丸就航

【廣島電話】 동해도(東海道)、산양(山陽)의 두본선의 불통으로인하야 대판 신호방면에 싸혀잇는 조선, 만주에 보낼 화물을 운반코저 신라환(新羅丸)(삼천톤)이 엇지회볼선으로 취항하게되엿다 신라환은 팔일오전 하관을떠나대판으로 향하엿는데 구일과 십삼일 두번에 대판에서 회불어올터이라한다

消費節約體驗談 懸賞부처서募集

총독부에서는 농산어촌에서 방금실행하고잇는 부업 또는 다른 생업에의하야 영세저축(零細貯蓄)과 농산어촌에맛는 소비절약에의한 소비절약을 적극장려하기위하야 그 실행담이나 지도체험담을 현상으로 모집하기로되엿다 그현상은 국어로 사백자 원고용지 스무장정도의것으로 저금실행의 동기와 실행지도 개시의시기 실행의방법과 그결과 저축액과 그응용상황등을 내용으로하야 오는 팔월말일까지 총독부농림국 농정과로 모자자격은 실행자나 지도자임을 요한다하며 심사결과 상금은 일등에 오십원지 두명, 이등 사십원 다섯명, 삼등에 십원식 열명이다

龍山水防團待機

上流地方에暴雨가오지안는限 漢江은아직念慮업다

련사일간 련속하야 오는비로인하야 한강연안(漢江沿岸)에 주거하는사람들은 홍수가 질가보아 염려중에 잇는데 한강상류(漢江上流)인 가평(加平)과여주(驪州)방면에 폭우(暴雨)가 업는한에는 한강이 붓지안흐며도는 아폭로 이삼일동안에 정기두곳에 풍우가 내린다하드라도 그간가물엇든 관계로 땅이 말라서 비물이 땅속으로 스미여드러감으로 그다지 갑작이 한강물이 붓지는안흐나 이삼일이상폭우가 게속할때에는 한강물도 홍수될것으로 예측된다고한다 그리고 룡산수방단(龍山水防團)에서는 작합일 룡산서부터 용산서안의 사무소에서 금년도 수방단(水防練習)에 대한 협의회를 열고 이십일일 오후두시부터 영정용산교(榮町龍山橋)다리에서 수방단이 출동하기로 되엿다한다

이번엔鉛、亞鉛、錫等의 非鐵金屬使用制限

商工省令으로九日公布

【東京電話同盟】 물자동원계획을위하야 상공성(商工省)에서는 철동의 사용제한에 뒤이어 이번엔 다시 비철금속인 연(鉛)、아연(亞鉛)、석(錫)의 사용제한을하기로되여 그사용제한 규칙을 구일날자로써 공포, 칠월십일일부터 실시키로 되엿다(係文略)

【東京電話同盟】 사번기념일이칠일에 강제사용금지의 거탄을던진 상공성에서는 팔일 또다시 『니켈』연(鉛)아연주석『안티모니ー』의 비철금속 사용금지의 두개거탄을 던저 일용품에조금남아잇는 쇠장식은 아주업서지게되고말엇다 여상공성령은구일에 공포하야 오는이십일일부터 실시되는데 어금지제도금지명상품을 벗는것은 『쥬ー브』에너은 치약으로 다편리당한 대용품이업스므로 말우는면제되마 (石鹼)의 제조는 전혀못하게되여에전파가린조히봉지에너흔것을 사용치안으면안되게되엿다 그러고 『포마ー드』를 『쥬ー브』에넛는것도 아울로도주벽에게도금지 주석주기(酒器)기타 『니켈』시계 남비솥등도 접부모판을끼게되엿다

五名을保護觀察에

【江陵】 강릉검사국에서 함흥(咸興)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회부된사람은 합다섯명인데 그들은 각각 당지의 최(崔)보호사와 삼보(森本)보호사의 보호관찰을 밧게되엿다고한다

武勳赫赫·川岸將軍

歡迎歡送諸準備整頓

전, 천안부대장(前, 川岸部隊長)천안문삼랑(川岸文三郞)중장은 작년팔월이래 노구교(盧溝橋)사건이 발발되자 선전에 참가하야 북지의 산야에서 폭지응성의 사를 진군하야 이래일개년간 각지에 전전하야 기다의 끈고결끄를 무릅쓰고 각처에서 난공불락의 견루를 공략하야 도처에서 적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나서 이제 위대한 성과와 세계전사상에 불멸의무훈을 남기고 이번 동부방위사령관(東部防衛司令官)의영직으로 부임하는도중 구일오전기픈 경성에내리게되엿다 경성에도착하기는오는구일오후두시삼십분차이며 떠나기는 십일오전일곱시오십분인바 영송때에는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원이 경성역전광장에 거행할것을 비롯하야 각단체 학생과 밋청회면일반부민의환송아이 경성역에서 남대문까지 빼처 국기의 물결과함께 만세소래가 창안을뒤흔들것이다 그리고좌백(佐伯)부윤과 하전(賀田)경성상공회의소회두의 발기로 오는십일 오후네시부터 부민관 중강당에서 관민유지합동으로다과회(茶菓會)열어서 장군의귀환을 축하하기로 되엿다 어다과회에 참석하고저하는부민은 십일일정오까지 회비이원을 첨부하야 경성부서무과나 강춤장소로 신청하기를바란다고한다

총딱

쉬밥도 차마아까와 그대로 먹어두는일도잇는 조선의 부인네 그가륵한심정이야 눈물리만 버려야 할것을 먹어두다니 배를 처렬혼사야 쓰는것이아닌가

○ 쉬밥 한령어 애끼다 잘헷섭갈을 병원에 바치고 그것도부족하면 목숨으로 바치는 수가잇스니 타산(打算)의 착각도 분수가잇지

○ 젊은며누리 시어머니와 불화하야 몸을 한강에 던지다.

내밀로 남의며누리 내어머니도 남의 시어머니가 아닌가 서루 참고 살아갑시다 그려!

新進"바리톤"歌手 李容俊君獨唱會

九日夜公會堂에서

일즉이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동경(東京)에건너가유명한 성악선생『베레티』씨 문하에서 성악을 연구하면서 금년봄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를 졸업한 『바리톤』가수의 이용준(李容俊)군은 이번가을에 미국으로다시 음악연구차로 떠나는 길에 구일밤 오후팔시 시내장곡천정공회당에서 고별독창회를 열게되엿다 이군은 시인으로서 천품이 탁월하야 전도가 만히기대되는만큼 이날밤의회도 조혼성과를 어둘것이 게대되고잇다 당야의 순서는 다음과가다 (사진은 이군)

第一部

一、1、갈개江우에서 스카랏티

2、사랑의기쁨 마르티니

3、어두운무덤 베ー토벤

4、永遠한이별 토스티

二、1、일허버린面紗 알리반

2、捺溜나무 포ー레

3、新譜 토스티

4、神의어린羊 베ー제

三、歌劇『道化師』中에서序曲 레온카발로

第二部

一、歌劇『리고레토中에서』 下의詠唱 베르디

二、金東振作曲

1、가고파 李殷相詩

2、뱃노래 金顯承詩

3、엘상다려라당말구 趙仁澤詩

4、너를보내며 金東振詩

三、歌劇『안데레아세니에』中에서제라ー드의獨白 조르다노

스포ー츠

平實3 大邱2

大每主催 第十二回 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 朝鮮最終 豫選 第一日의 全大邱對平壤實業戰은 八日午後四時五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古賀(球) 千田、西畑(塁)三氏審判下에 全大邱軍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三A對二로 平實軍이 快勝하야 今日에行할 準決勝에서 全京城軍과 對戰케 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平實	0	0	0	0	0	0	1	0	2A	3A
大邱	0	0	0	0	0	1	0	1	0	2

◇兩軍投捕=(全大邱)田中—尹在俊(平實)關井—金鍾洙

今日의運動

▲씨름=朝鮮씨름協會主催本社後援 第二回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 午後七時半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 (觀覽料=一般四十錢、學生三十錢)

▲野球=第十二回都市對抗野球大會朝鮮最終豫選第二日準決勝… 全京城對平壤實業(午後一時)大田鐵道對城津鐵道(午後四時)京城球場(觀覽料=내三後面 五十錢、一般三十錢)

▲柔道=中央靑年會定期紅白柔道試合 午後八時 鐘路靑年會道場(觀覽無料)

曆

▲七月九日(土曜)陰六月十二 干支 壬寅 ▲日出 午前五時十九分 ▲日南中 午後零時三十八分 ▲日入 午後七時五十七分 ▲晝間 十四時三十八分 ▲月出 午後五時十四分 ▲月入 午前二時二十八分 ▲滿潮 (仁川)午前一時三十五分 午後二時四十五分

【雨天不拘決行】

今夜!全朝鮮씨름大會

今九日午後七時半 朝鮮日報社大講堂

朝鮮의一流名將 (玄明鎭(咸興)、許承和(平壤)、宋炳寔(黃州)、趙允田(大邱)、李相浩(釜山)、李成楨(新浦)、金相浩(新浦)、文寶熙(黃州)等 六十餘名力士登場)

主催 朝鮮씨름協會 後援 朝鮮日報社

觀覽料 一般40錢 學生30錢

매독창병엔 푸로다ー가제일

驅黴最强力新劑

매독전멸에제일속한약

주사로안되는 분은꼭푸로다ー를쓰시오 구강안나고부작용업고안전합니다

매독전멸

나팔과가튼분은 지금 곳쓰시와 인생에 가장제일큰행복인 무병장자가되여 씩씩하고 거룩한 건강미를맛보시오 얼골에 여드름이만커나 큰여드름이 툭툭터지거나 남녀간에국부가 가렵거나 몸에종기가 잘생기는분이나 몸이떼떼루가렵거나 팔다리가 죽죽쑤시거나 눈이희미하고침침하거나 머리가잘빠지고 어듸든지살이 조금식 패여드러가거나하는분 이런 여러가지증세중에 한가지라도잇스면 곳쓰시오 그리고 신성당매독약 푸로다ー는 구병한분도 괴롭지안케하며 보혈강정합니다(滑血補血)조곰만다처도 잘곰는분은괴가납버서 그러하니 푸로다ー를 써보시오 주사로는 안되는것이확실히증명되엿습니다 그중거는 주사가 나온지가근오십년이나되는대 매독이점점퍼지는것을보드라도 알지안습니까 주사를잘못하면팔이썩어 곳 팔을찰는분도만코 곳 못찰느기때문에 전신이썩어서 죽은사람도만코 또호수(號數)를잘못하야 밋친사람도잇고 주사한대만마지면 일주일동안 일을못하고 두려누어야하니 버려먹는일만느는분은 할수도업고 일주일에한번식 마시려병원에가서 허비하는 시간만하여도 몃십원이나되오 일주일에한번식안마지면 숙는고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수십대마서도안되니 정주한날자와 돈배원이나들어도 잘안되니 무소용이지오 신성당푸로다ー가 신효한지안한지는 이맘고가증명합니다 적어도 수만명이 우편청천의 또 깨끗하게되여 효력을본분들의 구전(입으로전전)으로 널리선전되여 잘팔니는고로 이러케핑장하게한상광고할수잇는것이오 매독약으로 내외국을 다ー처노코 제일핑장하게 한상선전광고하는것은 오즉 신성당의 푸로다ー하나박게업지안습니다가 잘 생각하여보시면 알것입니다 매독이 즉당창인대 당창이잇는사람은 사람축에 들지못하고 겨헤오지도못하게하며 자기일신만 고통을밧는것이아니요 가족에게전염이되기쉽고 또대대손손까지유전하여주는것이니 이얼마나 두려운병이냐 자기만걸려 자기만죽는다면 할일업지만 전가족과전협족 대대손손까지 그무서운병균이 깁히전염되니 문둥병보다도 참혹하다 무섭다 무서운병입고도 못고치는자는 무어라고할가 아ー 일각을지체하지말고 곳 완치하여야한다 이 펴퍼써어들어가는것을 만히보앗다 그일례(其一例)를들면 하로는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 원전신매독이만창이된 시골머슴을다리고(雇人)와서병술고자주시요하고 그병처(患部)를보고 깜작놀낫다 그병처라는것은 당초에말할수업는것이다 즉분문(肛門)과 낭(囊)사이에 이전(二錢)짜지동전만하게 큰구멍(孔)이 뻥뚜러저잇섯다 아이 저러케몸에구멍이 뚤려지고도 사람이 엇더케살어왓나하고 사차물어보니 서울서머슴사리하다가 서울서 역시머슴사리를하는데 우연히매독에걸려 차차살이썩어먹어들어가나 머슴의신세라 약쓸돈도업고 주사마즐돈도업고하야 그대로 내버려두엇더니 이러케 구멍이크게뚜러젓고 요지음은 전신에종기부스럼이(腫物)툭툭터저 인제는못살것가타서 그전살던 서울주인을 차저와서 그전주인의정의로 사람살려주시오하고애결을하며온것이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 돈은내가낼터이니 이불상한사람을좀 살려주시요하고차저왓섯다 그리하야 약을주엇더니 완전한사람이되엿다고 편지가왓섯다 또한례를들면 그후에웬남자가한부인을 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 송진처럼 두덕이가저서 소롱이끼치여서 눈으로는 볼수업시 되엇는데 그부인말이 이병만곳처주면 죽어도그은혜를 안잇겟다고 우는목소리를 하면서 하는말이 여자가얼골이 이러케되여 남이부끄러워 살수가업스므로 주사는물론 여러백대를맛고 약이라는약은 잇는대로 다쓰고 별별치료를다하여보앗스나 종시 낫지안하는데 어떤사람은 암만매독으로 치료하여도 안낫호니 매독이아니고풍이라고하야 풍약도무수히써도 안되고하니 풍이라도 낫을수잇느냐고 말을 하엿다 신성당매독약 푸로다ー는 단순히매독창병만낫는게아니고 보혈강정(補血、淸血) 괴롤깨끗하게하는약이므로 설령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조흐니 한번시험하여보라고 하엿더니 멧칠후에그부인이왓는데 말쑥한미인이되여왓다 아ー참우대하구나 약의힘이여 그러케도무섭게생겨 눈으로볼수업는사람이 수일간에 미인으로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 그부인말이 인제는사람이되엿습니다 선생님의은덕이야말로 태산갓다고합니다 이러한자신하에서 그뒤로 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 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 매독가티 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엿다 죽엄길이나 무인대하중 냉병은자손에게유전(遺傳)은안되는데 이매독은자손에게 유전할뿐더러 칠팔대(七八代)를 대대로전하여가는것을알고 코가떠러지고 ○도빠지는것을알게되엿다 즉남편이병에걸리면 그부인도 물론곡걸리고 아이도 괴속에 그균(菌)을가지고나온다 참무서운병이다 그리고매독환자는 적은줄알엇더니 사실은그러치안타 다ー비밀에붓치고 풍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 그러치안타 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러데대개는 상약이나주사나 만히하엿서도 낫지못하고 고통을밧는것을보앗다 또 수은(水銀)을쓰다가 병신된사람이만타 또조약상의(調劑常藥)을쓰다가 피를로하고구감(밥종과창자를버려) 이나서 죽게된사람이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무서운병을 알면서 그냥둘수업스므로 충분히연구하엿섯다 그리하엿더니 감사장이매일끈지지하므로 자신을어더 이와가티광고를 내게된것이다 천만가지로약을하고 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 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 주저마시고 곳시험하시오 불원간시 낫습니다

책임조제니 약을쓰시와 마음대로안되면 어떠한책임이든 지집니다

가약

완고용 일원오십

중증용 삼원

경증용 칠십

다른병마다르니 짜리를쓰시와 아주회 올어쇠시오

지방송료 (선금 대금인환 십오전)

京城西大門入口 조선제일큰약업회사신기신성당

鮮滿總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資本金百萬圓

振替京城二三四九·一〇七七番 電話光化門 四五二〇番 私書函 西大門

中部版

法外의高利에억매여 前借金에좀먹는靑春
新町並木町公娼을個別的으로呼出 本町署에서實情을詳細聽取

어두운거리에서 고리의전차금에억매여잇는 공창들에게 구원의손이 뻐치고잇다—시내본정경찰서보안계에서는 요사히 날마다 신정(新町)과 서사헌정(西四軒町) 병목정(並木町)방면의유곽업자들을 불너다가 별실에서 장시간 취조를하고잇는데 그내용을들어보면 얼마전부터 동서에서는 유곽에서 차금에억매이고 거기다가 포주들의무리한학대미테서 일생을 눈물로 보내고잇는 가엽슨 여자들의 생활과 포주와의관계를 세밀히 조사하야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다시피한 그실정을 살펴보면 전차금에대한 리식과 포주들이 공급해주는 의복 화장품등 일용품의가격은 이사회안에서는 볼수업는 그야말로 법외의고율이므로 이것을 그냥두어서는 공창들의 전차금은 늘어만갈뿐아니라 사회법마 인도상 용인할수 업는것이라하야 이것을철저히 조사한다음 전시대유물인 가혹한 관습을 철폐시키고 법외로 횡포한 포주들을 탄압하야 공창을 보호하라는 방침미헤 그기초공작으로서 그들 개개인의 실정을 조사하기로된것이여서 아므로 일주일동안 면면히 조사를 계속하리라한다

問題의專任學務課長 京城府에遂實現
社會課長에宮原氏가任

경성부에서는 종래학무과장을 사회과장이 겸임하야 그기구 장을 두기로 [illegible] 노력하여왓든바 이번에 [illegible] 이번에도되여 [illegible] 하고사회주사로잇든 궁원씨(宮原氏)가 사회과장으로 등용되엿다

江華에도甘雨

【江華】 일지한발로 애태우든 강화에도 칠일정오부터 시작하야 칠일오전까지 상당히 내리엿스나 벼가 왓는데 아직도 오륙십미리의우량이 더필요하다고한다

▲一金二十錢 平井 郁子 ▲一金八圓 龍山小學四年生(イ)組一同

江華松海面에 傳染病者發生

【江華】 강화군 송해면(松海面)방면에는 일지 적리환자가 속출하야 인심이 흉흉하든바 또 다시 칠일에는 동면 하도리(下道里)에사는 어정현(魚正鉉)의 처 김씨(金氏)가 적리로고통하는것을 발견하엿고 동 삼일에는 하점면신봉리(河岾面新峰里)에사는 김이봉(金二奉)은 장질부사(腸窒扶斯)에 걸려 생명에위독을 전하고잇다는바 때가때라 일반은 더욱공포를느끼여 마지안는다고한다

煉瓦職工獻金

부내용두정(龍頭町)에잇는 경성연와(京城煉瓦)공장에서는 지난 칠일 사변일주년기렴일을 의의잇게 지내고저 전직공일백오명(그중 여직공 삼십사명)이 이날 하로의 임금의각각 팔할식을 국방헌금으로 내기로 하엿는데 그총액이 팔십오원사십전에달하여 이것을 대표자가 가지고 팔일 동대문경찰서에 차저와서 헌금전달을 위탁하여 게원을 감격케하엿다

을 마지하야 경성부민의 애국지정은 더욱더 노파저서 국방헌금이 뒤를이어 몰려왓는데 어제하로의 주요한것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一金三十圓也 小林 春樹
▲一金百圓也 彰德家庭女學校職員生徒
▲一金二十錢 佳田 初夫
▲一金十錢也 高田 和子
▲一金十錢也 田淵 芳子

結婚의記念品 白金班指獻納

【開城】 개성부대화정(大和町)이

轟島道路도鋪裝 第一期工費一萬二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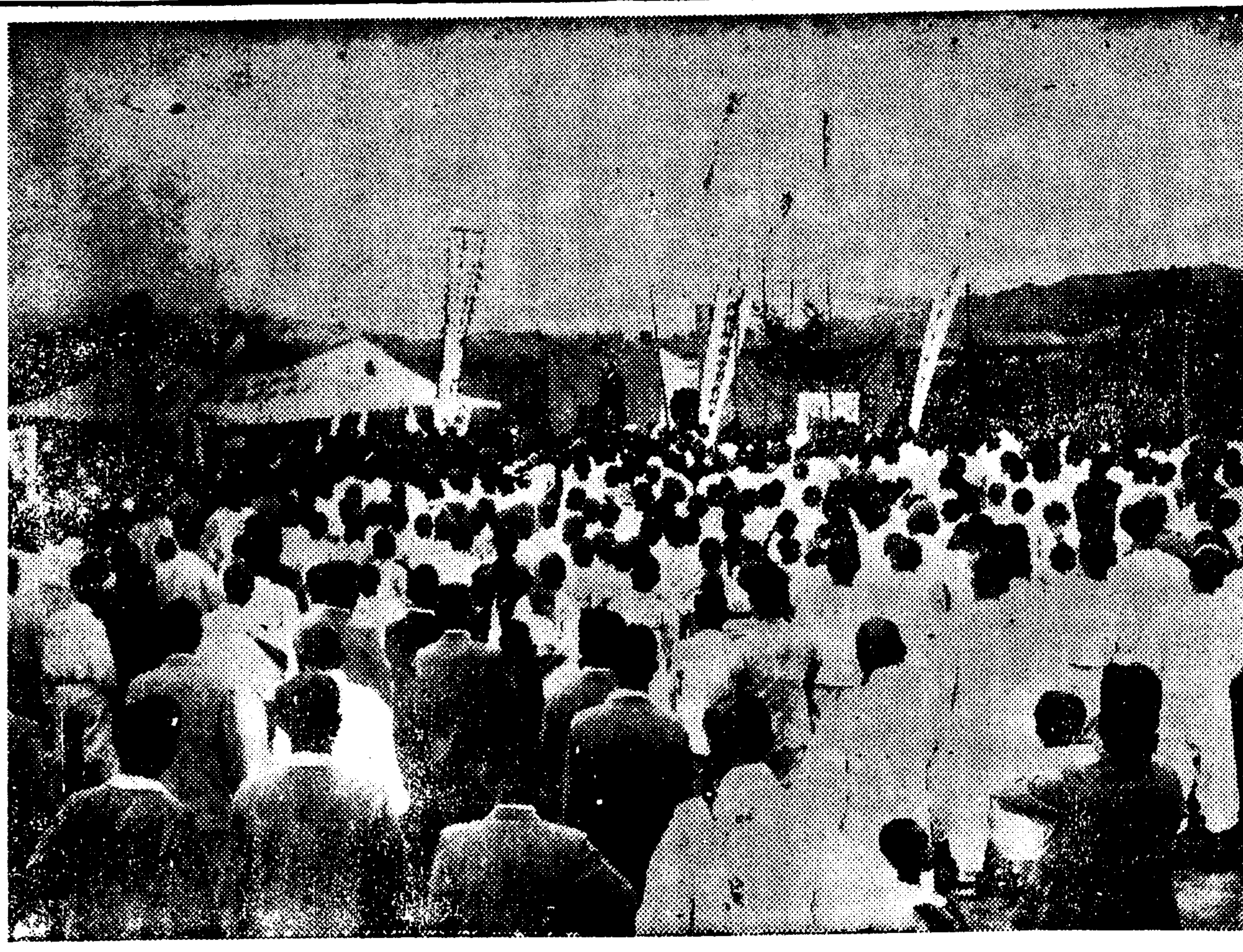
【纛島】 독섬의제방공사가완성됨에따라 독도도로포장공사를 하게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면당국에서는 그동안 모든준비를끝히마치고 지난칠월하순에입찰을시켜제일기공사비(第一期工事費)는 일만이천원으로 구야조(久野組)에낙찰되여 예정대로 유월말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다는데 제이기공사는 명년도 예산으로 계속하게되엿스므로 이공사가 준공되는날이면 문제중의 뚝도 도로는 일소되는동시에 일반의 통행은 편리하게되리라하야 일반은 속히준공되기를 손곱아 기다린다고한다

家庭不和로飮毒

가정불화로 부부간에 싸홈을하고 자살하려든 여자가잇다 시내합정(蛤町)일백삼칠번지 림봉섭(林鳳燮)(三二)이라는 여자는 오일아츰에 남편과 싸홈을 하고분김에 동일오전십시경에 양재물을먹고자살하려다가 집안사람이 적시발견하고 시내화천정(和泉町)송전(松田)병원에 입원가료한결과 생명에는별이상업다고한다

些少한말성이發端 親故를毆打致死
警察은犯人을引致

동무끼리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사람을죽엿다—부내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구백구십오번지에서 잡화상을 경영하고잇는 정대천(鄭大千)(三五)이는 가튼동리에서 연탄(煉炭)행상으로 그날그날을 보내고잇는 박홍식(朴弘植)이와 오래전부터 친하게지내왓는데 박홍식은 연탄행상이라 직업도 천하려니와 행색이 초라하다하야 이전부터 전기잡화상 정의처가 이런사람과 남편이 동무가되여잇는것을 불명예로 생각하고 누차 남편에게 그와 발을 끈흘것을 권해왓스나 남편은 안해의 말에귀를아니 기울이고 여전히 이러한눈치를 보이지안코 친히지내왓다한다 그러던것이 지난 오월팔일 [illegible] 왕십리정 구백팔십번지의사십이호에사는 이학동(李學童)(二六)이 가 정의처에게서 가튼이야기를 듯고서는 이것을 연탄행상 박홍식에게 고자질을 하여 이때문에 두친구의사이는 자연버려지게되자 이러케된 원인이 고자질한 이학동에게 잇다고본 전기 정대천은 분함을참지못해 동일오후 팔시 이학동이를 만나 너가튼 사내답지못한놈은죽여버린다고 멜태방망이로 때려고 덤벼든것이 도리어 이것을막우려던 전기 이학동의 발에 목을채여현장에 혼도하게되엿는데이래 성대(城大)소천(小川)외과에 입원치료를 가하엿스나상처가극소엿드니만치 치료의효과가 시원치안허 죽고말엇다 경찰에서는범인을엄중취조중이다



不合格蔘紛糾問題 總督府의指示로遂解決
放賣한것을全部回收、切蔘으로製造販賣 "原蔘販賣"는定款違反行爲

【開城】 백삼(白蔘)검사기관인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에서는 비검사품인 불합격인삼(不合格人蔘)판매는 정관 제사십오조를 위반한처사이라고 항의함에 반하야 제조회사인 개성삼업주식회사(開城蔘業株式會社)는 절대로 정관위반이 아니라고주장해서 지난삼월부터 오늘까지 이래 사개월간을두고 분규를거듭하든 소위불합격품판매문제는 지난유월말 이사실 회사에서 상품을팔어버리게되자 조합측에서는 위반자를법률에 처한다하야 쌍방의대립적감정은극히악화되여 개성삼업계에 커다란파동을 이르켯다함은 기보한바이다 그후이문제의 장본이되는 정관해석은 쌍방이 견해를다르게 주장함으로 해결될기미는 보히지안코 사태만 험악하게되여 결국해결의 열쇠를 총독부심의실에까지 구하게이르럿든것이다 그래서 일반은 금후해결이 어찌되나하고 자못주목중이엿섯는데 지난오일 송부윤(宋府尹)은 조합측대표 고한승(高漢承)씨와 회사측대표 조중환(曹龍煥)씨를 부윤실에 초빙하야 가지고 오늘총독부에서 정관해석에대한 지시가왓스니 다음과가티 해결을 짓도록하라고 말하얏다한다

총독부상공과에서는 장시간동안 신중히 토의한결과 구역내에서 소비해도 무방하다

聖戰一周年記念行事
近畿各地에서도盛大히擧行

【開城】 사변일주년을 마지한 지난칠일 총후의 적성봉유 감격어린 발로한 개성에서도 일주년기념의 각종행사가 성대히 거행되엿다 동일오전일곱시부터 열한시까지 일장기가 번득이는 개성신사(開城神社)광장에서는관민이만여명이 모히여 출정장병의 결사적 로고를 생각코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묵도를 올렷스며 뒤니여 전몰장병의 영령에 눈물겨게 감사한다는 뜻으로 위령제(慰靈祭)를 엄숙히 거행하엿다 이식이 끗난직후각학교 청년단 방호단 각관공서 단체와 관민등의식장에 모엿던부민들은 그대로 장사진을 느리여 시가행진을 시작하엿는데선두에선 악대의 애국행진곡이시작을 올리자 수십개 단체의깃발이 바람에 벌럭이는 미트로 거국일치의 장엄한 애국행진은 시작되여 문자그대로 축승일색(祝勝一色)으로 개성장안을 물드려논 감이잇섯다 그런후 동일오후한시에는 군사후원연맹(軍事後援聯盟)이주최가되여 출정군인 가족의문파를 정부대에게 감사전보를 발송하엿스며 오후두시에는 만월소학교(滿月小學校)강당에서 개성불교단체주최로 전몰장병 추도회불전식(戰歿將兵追悼會佛典式)이 엄숙히 거행되엿고 동네시부터는 육군보병중위 영진박(永津博)씨의 군사강연이 동강당에서개최되엿섯는데 일반청중에게 만흔교훈과 감격을 주엇섯다

【楊州】 지나사변일주년기념일을기하야 칠일오후 두시부터 국민정신 총동원발회식을 양주심상소학교 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하얏는데 모힌회원은 무려 오천여명으로 광대한 운동장을 립추의 여지가업시 비상한장관을일우엇스며 리사장(理事長)조기행(趙基行)씨의 인사로개회되여순서에 의하야 엄숙히 식이 진행중 별안간 퍼붓는비는 눈을뜰수업는대도 불구하고 부동의자세로 오후세시에 식을맛치고해산하얏는데 시내행진은 부득이비로 인하야중지 하얏다 (사진은식장광경)

【水原】 지난칠일로 지나사변일주년을 마지하게되여 수원군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으로이 일주년을 기렴코자 허수원군수(許水原郡守)지휘하에 만반준비를하엿든바 하느님도 이날은 전몰장병의 영혼을조상하는듯이 전날밤부터 내리붓든비는 오히려 긋칠줄을 몰으고 내리붓는데도 오전여섯시에는 수원신사마장에 립추의 여지가업시 군중은모혀 무운장구 기원제를 지내고 뒤이어 경전수원지점뒤 광장에서는 전몰장병 위령제를 지내든군민정신총동원 수원련맹 발회식이 잇섯는데 이날모힌군중은무려오륙천명이고 각료리집 파유지점은 전부폐업을 단행하야 거신의뜻을 표하엿다

【竹山】 칠일에 안성군이죽면(安城郡二竹面)에서는 사변일주년을 기념하기위하야 다음과가튼 행사를거행하엿다

一、全面에 七日午前十時에 竹山小學校에모여 面長 駐在所首席 小學校長諸氏 指揮下에 記念式과 勤勞報國團結成式을 擧行

二、同校庭에서 面長의 時局認識普及의講演이 잇섯고

三、官民이 竹山神祠에 參集하야 國難打開戰役將兵의 英靈追悼 出征將兵의 武運長久를 祈願하야 默禱 敬虔하게 各節次를 다하고散會하엿다

京畿道內의勤勞團 二百七十三團結成
暴雨무릅쓰고多數參集

경기도내의 이백칠십삼 근노보국단결성식은 사변일주년기념일인 칠일 일제히 거행되엿섯는데 팔일이에대한 보고로 도사회과에드러온바에의하면 모두 호우가쏘다지는 구진날세임에도 불고하고 만흔곳은 이천여명 적은곳은 삼백명의 단원이 출석하는등 식은어느것이나 성황이엿섯다 이날 식이 끗난후 각지에서 모두비를마저가면서 근로작업에착수 하엿는데 이천(利川)가튼 곳에서는 영정(永井)보안과장을 선두로 관민일천오백여명이나참가해서사업도로 폭(幅)사십미돌 연장사백미돌이나되는 수리공사에 착수 팔분가량이나 마쳐버렷는등 국민정신 총동원적입장으로 보아 그럴듯한 하로를보내엿다

楊州聯盟創立

【楊州】 이미 누보한바와 가티 국민정신총동원 양주련맹창립총회는 오일오후 한시부터 군회의실에 의정부(議政府) 가릉리(佳陵里)두부락의 유지 오십여명이 회합하야 발기인측 대표로 조기행(趙基行)군수의 취지설명이 잇슨다음 만장일치로조군수를 임시좌장으로 추천한후 규약제정과 역원선거를 맛치고 신사참배로 산회하얏다 그런데 역원은 다음과갓다

理事長 趙基行 副理事長 後藤金十 文承阜 理事 十二名 伊藤哲攝 上田謙一 久米熙 姜振九 李恩恒 李重九 吉村德三 進直好 中島源次 朴範陽 瀨立眞直 島田淸 顧問 福田俊赤市 井上己吉 評議員二十五名 第一區 田中與吉 金忠植 張基玉 金祥熙 本田抑三 鄭基夏 金永弼 第二區 朴禮秉 洪元燮 金哲柱 李容赫 渡邊仙治郎 李鍾梁 洪淳昱 閔光植 第三區 李馨完 邢熙澤 佳田秋男 尹鎭培 玄道峰 嚴柱湜 佳佐洞 李世榮 李奎和 直洞 文德相 姜秉敏

國民精神總動員 始興郡도聯盟에參加
十五日까지에는結成될듯

【永登浦】 전조선관민이일체가되여 전시체제하에 총후진영을공고히하고저 오는칠일 지나사변일주년 기념일을기하야 발회식(發會式)을 거행하게된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은 지난일일창립총회를개최한이래 남총독의절대한지원성명(支援聲明)과 일반민중의시국에대한 각성이 서로호응되야 전조선각지로부터 동련맹각지방세포결성(各地方細胞結成)의 운동이 우후죽순과가티 이러나고잇는데 금번시흥군(始興郡)에서도 동연맹에참가하야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를 도모코자 얼마전부터 제반준비를 진행중이엿스나 칠일까지에는 기보한바와가티 근로보국단(勤勞報國團)의결성 애국저축장려의 지도등 기정계획이 분망하야 느저도 오는십오일까지에는 그결성을보고저 방금 군관하 각면과 긴밀한 연락을취하야 준비에분망중이라한다

開城基督敎徒 記念禮拜執行

【開城】 역사적성전일주년기념을 마지한 지난칠일 부내관민이만여명은 각종행사를 집행하엿다함은 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날부내기독교신도들도 전도보국(傳道報國)으로 정성을다하기위하야 오전십시 북부예배당(北部禮拜堂)에 백여명의 교도가 참집해서 김종필(金鍾弼)목사의주례하에 개성교회연합성전기념식(開城敎會聯合聖戰記念式)을엄숙히거행하얏다하며 유백희(柳百熙)씨의 축도(祝禱)로 제일선장병의무운장구와 전몰장병의영령에대한 눈물겨운감사로 조의(弔意)를 표하얏다

回收는增加 貸出은減少
六月中公益質屋成績

경성부영공익질옥(公益質屋)의 지난유월중성적을보면 동부, 서부의 두질옥에 대출(貸出)이이천십팔명에 일만이천오원구십전인바 전년동월에 비교하야 대출인수가 이백사십칠명이 감소되고 대출금액도 삼백구십이원이감소되여잇다 또 회수(回收)에잇서서는 그인수가 이천오백삼십구명이요 그금액은 일만일백칠십원팔십전인바 전년동기에비교하야 인수로는 구십이명이 증가되여잇고 액수로는 칠백십구원이감소되여잇다 이와가티회수가 증가되고 대출이감소된것은 서민경제가 자못향상되어가는조짐으로보인다

開城에도千金雨 菜田一齊히蘇生
오이갑暴落·호박은高價

【開城】 성장하는 곡물에 갈치는 천금가튼 감로수(甘露水)는 개성지방에도 앗김업시 내리고잇서 도약면히 생기를주고시들어버리는 채전(菜田)들은 모다 회생하얏다 이때문에 팔일 부내도교시장 (都橋市場)의 「오이」시세를보면 한고리에삼십전하든것이 십오전으로 반이나폭락되엿다 그래도 「호박」시세는 떠러질줄몰라 오전한닙에 내개다섯개 박게안준다는데 이가티 빗싼원인은 오래동안 가물음에 시들은 호박넝쿨이아직 소생치못해서 호박꼿이 충실히 피지못한때문이라한다

發生患者는增 死亡者는減少
六月中京畿道傳染病猖獗

날이 더워오면 각종전염병이 갑자기 느는법이지만 금년은예년에비해서 한결더심하야 발생율이 엄청나게늘엇다 즉 경기도위생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유월중 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수및 사망율은 다음과갓다 즉 유월에 드러서 전염병에걸린 환자가 사백육십구명이나되는데 이것을 전년동기의 삼백육십구명에 비하면 백명(근사분의일)의 증가이다 그런데죽은 사람의수효를보면 도로혀줄어저서작년동기에는 륙십명이던것이 금년이달에는 사십구명바게는 안되여환자는 불엇는데사망자는 줄엇다는 점에서흥미잇는재료를 보여주고잇다 그런데 가장만흔전염병은여시 적리(赤痢)로서 삼백칠명의 환자를내엿고 다음은 장질부사의 오십육명 지푸테리아의 오십사명 발진지부스와 성홍열이 각각 이십삼명식이나된다는것이 눈에띄인다 특히 적리는비상히 늘어서작년 [illegible] 칠명이나되니 거진배가 늘은세음이다

主人을속여麥酒密賣 貧困한店員作罪
債鬼의입막다가發覺되여被捉

부내화원정(花園町)삼구번지식료품상리창식(李昌植)상점 고용인 유길린(柳吉麟)(二五)이라는자는 유월오후네시경 주문도 업는맥주여섯상자를 주문마텃다고 주인을속인후 물건을 가저다가 황금정 사정목 모상점에 사십유원팔십전을받고 팔어먹은 사실이드러나 방금 동대문서에서 엄중한 취조를받고잇다 죄짓게된원인은 약간한수입에 쓰든돈은 만코 자연 빗만늘어 독촉이비빨가튼 채귀들의입을 막어낼도리가업서 이러한일을 저즐른것이라한다

砂利採取場에 男子의溺死屍

【纛島】 칠일아침 동독도리강변 자갈채취장(砂利採取場)부근에익사체(溺死體)가 떠잇다는보고가 뚝섬주재소에 드러와서 주재소에서는 암영부장(岩永部長)이곳 현장에 달녀가서 시체를 검시하엿스나 어느때죽은것인지 전연 알수업는 자이므로 혹시상류에서 표착된것이나 아닌가하고 직시본서에 급보하야 상류각방면으로 수배를하야 그시원을조사중이라한다

地方人事

▲李明圭氏(江華釀造株式會社支配人) 新任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申泰植氏(楊州郡屬)新任人事次本報楊州支局來訪
▲安基成氏(前楊州郡屬)開城府榮轉人事次本報楊州支局來訪
▲尹賢榮氏(前楊州郡屬)京畿道榮轉人事次同上

003420

梨泰院三角地間의 빠스運轉에非難
兩地의發展따라乘客은每日續出 빠스는單一臺로우물쭈물

【京南】 경남일대 오만사천여명의주민들이 열망하든 삼각지(三角地)에서 이태원정(梨泰院町)간 "빠스"운전문제는 계속하지만 일개년에 해당하야 승객들도 날로격주해가고잇는데 이곳에의족 경정(京定)기관을장악한경전(京電)에서는 계속당시부터 오늘까지 이일키로나 되는 장거리에다가 "빠스"한대를노코 쌍방의승객을 서머내느라고 차내의승객이란 말할수업는 불편이나 그러나 일조의여열조차업스며 나마도 십오분내지 이십분만에 한번식 왓다가는것을 승객의주로 제대로못타고 다음번의 오는차를 타고저 보통사십분간을 대합실(待合室)도업는 벌판에서 몬지를 켜쓰며기달리는 것이 상례라한다 더욱 지난 [illegible] 당국자의 처치를 절실히 요망하고잇다

京南一帶에는 벌써水亂防備

【京南】 여름철이되면 한강수의 범람으로 인하야 연안주민들은 해마다 그피해를 입어오는것이 상례로되여잇는데 금년에도 벌써장마가 [illegible]

全仁川籠球大會
申請者가殺到하는 九日午後까지申請接受

【仁川】 인천체육구락부(仁川白軍俱樂部)주최 본사인천지국후원의 제일회 전인천롱구대회(籠球大會)는 [illegible] 발서부터 신청이 쇄도하야 인기가비등된다는바 신청된 참가「팀」은 [illegible] 신청기일은 구일오후까지 본보인천지국과 부내경정(京町)백양구락부에 신청을받는다는바 [illegible] 신청하기를바란다고한다

屠獸場가든牛公 主人을바더重傷
梨泰院町의慘事

【京南】 팔일오전 여덟시경 부내 한강통 육군병원(龍山陸軍病院)압큰길거리에서는 부내리태원정(梨泰院町)사백오번지에사는 장응호(張應浩)(六五)라는노인이 창신정도수장(屠獸場)으로향하야 소한마리를 끌고가는도중 전기 장소에서 소가드러덤벼 날카로운뿔로 전기노인의 복부(腹部)와 엉덩이를 두차례나바더 빈사지경에이른것을 길가든 사람들이발견하고 즉시 부근병원에 응급치료를 밧게하는중인데 생명이 우려하다한다

竹山에도甘雨

【竹山】 경기도안성군죽산지방에는 봄부터 모판(苗板)에 명충이 심하더니 이앙(移秧)후에도 명충(螟蟲)이 번식하고 도열병이심하야 피해면적이불소한중에 한발(旱魃)로수전(水田)이 산판이나 말라감으로 일반농가에서는 우려하야 일대소동이엿는데 지난칠일오후부터 비가풍족하게 나리므로 농작물에 병해가 퇴치되겟다고 적이 안심되며 강우는 계속중이다

中部蹴球大會 優勝은廣州軍

【廣州】 삼일리천군에서 거행한 중부축구대회에서는 광주군이우승의영관을 획득하얏는데 작년과 금년연이태나 우승하얏는바 광주군의용약한기술은 자못놀랍만하다고한다

勤勞報國團結成
楊州郡十六面에서도 지난七日、盛大히擧行

【楊州】 국가총력에 근원되는청년층의 육체노동에대한 존중한뜻의 함양과 심신을 단련하야 국가융성의 기초가되며 규률과 통제잇는 집단적 노동을 실지로맛보게하기 위하야 군내십육면에 근노보국단을 조직하야 사십팔세이상 삼십오세 이하의 청년장년으로 단을조직하게 되여칠일을 기하야 일제히 결단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면에단을두고 각리에 분단(分團)을두고 각진흥회에 대(隊)를두게되엿다한다

家族席 特別設備 高級食館
大小宴會 大歡迎 擴張奉仕
京保グリル
二階 グリル 二階 純茶房 一階 高級酒場
京城鍾路二丁目 電話光③六三九番

長篇小說 薄命 (43)

韓龍雲 作 / 鄭玄雄 畵

「예 순영아」

송씨의 말소리는 거룩할 떠 주어서 부드러웠다

「예」

하는 순영이 저분도 조금은 부끄러웠다

「너 내한테 맞기에서 아프냐?」

「괜찮어요」

「내가 너를 아프라고 때린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야서 때린것이다 너도 생각하야 보아라 내가 너하고 살이 섞겻니 피가 섞겻니 언제 한번이나 코빼기를 보기나 하얏니 그런데 너를 전라도항에서 노자를 드려서 데리고 온것은 소판이 하사나 나도 너를 걸려서 자미를 보고 너도 내게 의지하야서 사람이 되여야 하지안켓니 그래서 나는 아무조록 너를 잘 가리처라고 하는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가리처라고 하는것은 네게 매달만 보자는것은 아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배워서 장래에 굶지아니하고 살도리를 하여야 하지안켓니 그래서 네게 알아진 소리를 배우지안켓다구 앙탈을 하니 너 나가니 안나가니 어린소견에 이란도 생각하야 보아라 그래서 화김에 한번때렷스나 너를 넘흐 사정업시 때렷나 하니까 내일부터 다니며 공부나 잘하여라 그리고 언제 나보고 어머니라고 그래라 낫는것도 부모요 기른는것도 부모다 내가 너를 길러서 평생을 가치 살려인즉 모녀간이 안되겟니 그러니까 나보고는 어머니라고하고 저 옹손보고는언니라고 그래라」

「예」

하는 순영이는 그말에 젖든 듯 하얏다

「그래 내일부터 공부를 하라면 오늘가서 말을해야 할터인데 나하고 가리가자」

하고 이러서라다 다시 앉어서 어디로가야 조흘른지를 생각하야 보앗다 순영이를 기생을 만들자면 권반(券番)으로가서 공부를해야 조흘것인데 요전에 시구문안 노파의말도 말이어니와 기생노릇을 할만치배우라면 여러해를 지나야 되겟고 이위한 일학금 오원이드려야 되것슨즉 당장에 그것도 걱정이오 만일 그럿치를 조금 만가르처서 색주가로나 보내라면 사숙(私塾)으로 보내는것이 조흘 줄노 생각하얏다 가지를 노코 공부를 하기나 하여야 할것이다 송씨는 순영이를 다리고 서울 외진사숙으로 보내기로 하얏다 공을 삭으로 작정하얏다 고요하엿다

「선생님 게세요?」

하되 송씨는 문을열고 드러섯다 방은 제법 크다 아랫목에 옥십가량 되여보이는 노인이 안젓는데 종을은 무던하데 조금 궁끼가 엿서보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만이요 한참 못뵈엿구려」

「그새 서울좀 갓다 오너라고 한참 못뵈엿습니다」

「어느 시골이오?」

「강원도좀 갓다 왓서요」

「조흔데 갓다오섯구 그려 금강산 자셔습디까?」

「금강산이 무슨 금강산이여야요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는데 무는 호강으로 구경 다니것서요」

「그래 서울잡서 자머따 보섯소?」

「자머가 무슨 중의양식 여야요 아이하나 다리러갓다 왓지오」

하는 송씨는 순영이를 도라보고

「너참 선생님께 연사 여쭈어라」

하니 순영이는 선생님의 정면으로 가더니 공손히 주저안저서 두팔을 양쪽 여프로 집고 세시절을 하다 그러고 아무팔도업시 어리선다 그것을눈여겨보던 송씨는

「너 좀어니깨 그러치만 절도 그러케 안는것이다 그러케주저안저서 하지말고 안질때에 무릅을 꿀고 안저서 팔을아프로집고, 또 고개만 숙여지 말고 허리까지 굽히는것이다 그러고 이러나저말고 그대로 안저서 『안녕합시오』하고인사를 하는법이다 말로만 엘러서는 잘 모를터이니 다하는 것을 보아라」

하고 이러나서 계생의 절로 한번 얌전스럽게 절하고 『안녕합시요』 하는 인사까지 하더니

「언제 절을이러케 하여라」

하고 순영이를 본다

全朝鮮씨름大會對陣

南北各地巨將動員!

興味이끌爭霸戰

京畿、咸鏡、平安、慶尙、黃海代表出場

力拔山의巨將들이 一堂에모여서 今年度朝鮮의 最高覇者를다투는 第二回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는 마침내今九日과明十日午後七時半부터 本社大講堂에서 擧行하게되엿다 朝鮮有史以來처음보는 各地巨將의 競爭은 全朝鮮의 民衆的인 人氣를 이끌어 空前의 盛況을 이루고잇는데 무엇보담도 南朝鮮의 無敵將軍인 金相洛君의 因緣지은二戰이 아닐수 업스며 北朝鮮의 驍將玄明鍋君의 對戰을 비롯하여 南北의 常勝將軍 李相澔君, 平安道의 巨將 許承和君, 黃海道의 宋炳垂, 玄寬彦君等과 其他諸勇士의 實力은 戰前豫想을 許치안는다 이等力士群이 어울린 今夜의 爭霸戰은 滿都의 人氣를 總集中하고잇는데 이날의 對陣은 다음과 갓다

大會役員

▲會長 李克魯 ▲相談役 姜樂遠 姜瓚求 金圭冕 李丙學 李景錫 徐相天 成義慶 張權 ▲總務委員 高鳳梧 金潤根 鄭商熙 崔佑東 韓紗熙 黃乙秀(以上가나다順) ▲審判委員 金根燦 金潤根 李仁翻 金重選 朴容業 河永得

▲審判委員 李在鎬 閔泰浩

中等生徒部

崔達泳(普成) 高廷立(再學) 石在德(普成) 鄭東稷(普成) 羅相紹(普成) 蔡均錫(普成) 陳相君(普成) 金明龍(普成) 黃贊振(工業) 洪永均(普成) 高在敬(普成) 李秉穆(再學) 李昭雄(普成) 張基虎(普成) 洪性稷(普成) 姜乃坤(工科) 朴槇珍(普成)

一回戰 二回戰 三回戰 準決勝 決勝戰

寫眞上으로부터 李相澔, 金相洛, 玄明鍋, 許承和, 黃海道의 宋炳垂力士

일반씨름部

李亨培(載寧) 申澤善(安州) 朴興俊(咸興) 崔得保(平壤) 李相澔(釜山) 高廷立(再學) 宋炳垂(黃州) 金來鎭(道廳) 朴哲俊(體研) 許承和(鍾城) 李龍鎭(延專) 李成株(新浦) 李丁熏(京城) 金明龍(成州) 金成珍(雄基) 金善學(安州) 張基虎(普成) 嚴海明(京曜) 羅允出(大邱) 李春根(安州) 玄明鍋(咸興) 金明龍(普成) 李祥鳳(京曜) 朴春果(元山) 玄寬彦(黃州) 金南龍(新浦) 李禎鎬(興水) 趙雷行(延專) 金相洛(洪原)

一回戰 二回戰 準決勝 決勝戰

바른씨름部

金林石(京城) 朴大根(京城) 李丁熏(京城)

二回戰 準決勝 決勝戰

朝鮮籠協決議文

大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와 合流된 朝鮮籠球協會에서는 七日에 다음과 가튼 決議文을 發表하엿다

◇決議文

半島籠球界의 一元化의 必要와 非常時에 잇서서 擧國한 團結을 爲하야 玆에 大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와 合流하기를 決議함

卓球代表三選手 廣島에서도一戰

七月七日 朝鮮卓球協會

【大阪電話同盟】來十三日부터 日滿大學生對抗卓球選手權大會에 參加하는 朝鮮代表選手 朴炳根(大商)、李東鎭(普專)、高庚模(普專)等三選手는 八日廣島에서 一戰을 交한後 十日에는 午後六時부터 大阪武德會館에서 大日本卓球協會軍과 交歡試合을 行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基靑柔道定期戰

講道館朝鮮支部에 屬한 中央基督敎靑年會柔道部에서는 明九日午後八時부터 定期紅白柔道試合을 行하게되는바 一般의 來觀을 歡迎한다고한다

大衆講座【九日後八、〇分】 裁判所이야기

京城覆審法院判事 金準枰

사회구성(社會構成)과 동시에 법(法)은성립하게됩니다 법을행사하는곳이재판소입니다 재판소는어떠케 구성(構成)되여 어떠한일을하는지 판사、검사、서기집달리(執達吏) 정정(廷丁)들은 어떠한 직능(職能)을가진것인지 민사(民事)는무엇이고 형사(刑事)는무엇인지 애결、언도、판결이란무엇이며 그경과는 어떠한지 이러한이야기를하고서 합부로엄격하게 냉정하게만 보여는재판소에는 어쩌어 파연어떠케 벼처이는가 거기에도 온정이잇고눈물도잇다는 법창(法窓)의 「로―만스」도 좀들려드리겟습니다

(寫眞은 李白姬孃)

=社會見學= 人造氷製造法(九日後八、三〇)

—朝鮮製氷會社에서中繼—

見學 李白姬 / 解說 金鍾聞

「마이크」를통해서의 사회견학 오늘은 어름을만드는회사의견학을 하는 겝니다 자연으로 얼어던얼음을 떠두엇다가 쓰는시절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위생적(衛生的)으로보아서 천연빙(天然氷)은 도저히 쓸수업는것입니다 「암모니아」를가지고서 정하고풀을 얼리는 인조빙(人造氷)의실황은 그대로생생하게 들려드리게 되엿습니다 한번들어보시는것이 조흘것입니다

家庭時間 어린애에게조흔 習慣을길너주자(九日前一一、一五分)

東亞日報 朴承浩

습관은 제이의천성(天性)이라고 합니다 제이의 천성이라기보다도 그버더나온 바탕은 조흘지라도 후천적(後天的)으로 잘못배우게되면는 그조흔바탕은가리워지고 빗두러집니다 그점으로 조흔습관을 길러주어야될필요가 절실한데 이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흔습관을 길러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잇겟지요마는 너무 강제적으로 하며는 도리어 반발심(反撥心)이 생기게 되며 조흔것만을 보여주고 그반면은 감추어 버리고자고만하며는 도리어 아이들을 약하게하고 편협하게 하는것입니다 올코 글흔것을 판단하는힘을 걸러주어야 할것입니다

放送

九日 (土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어린애에게 조흔習慣을 길너줍시다」 東亞日報 朴承浩

◇正午 (東)時報 (東)「土曜코―너」(第廿九回) 東京放送管絃樂團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野球試合實況(國語)—「第十二回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童謠와合唱 一、童謠獨唱 京保童謠會 1、작난감비행기 2、손목시계 3、배를봉뇌 4、원숭이 5、물장난 6、배젓기 7、동물원 8、병아리 二、合唱 京保合唱隊 1、도적쥐 2、希望の曉 3、

◇同七時 趣味講演 어린이新聞 編曲 指揮 洪蘭坡 伴奏 DK管絃樂團 合唱指揮 李興烈 愛國行進曲 京城保育學校生徒

◇同七時三〇分 뉴―스 申竟均 (二)

◇同七時五五分 어린이新聞 趙後美

◇同八時 大衆講座 裁判所이야기

◇同八時三〇分 社會見學(第八回)朝鮮製氷會社로부터中繼 京城覆審法院判事 金準枰 見學者 李白姬 解說者 金鍾聞

◇同八時五〇分 一、執杖歌 二、遊山歌 三、船遊歌 張彩瑄

◇同九時一〇分 管絃樂 一、古代風맨누엣트 카르카노르作曲 二、모―리스의종 노―블作曲 三、小夜曲 카야―너作曲 四、콕스페에 들리―브作曲 DK管絃樂 指揮 洪蘭坡

第一放送

◇同一〇時一〇分國語講座(一七) 뉴―스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뉴―스解說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九時三〇分 (時)時報

◇午前六時三〇分基礎英語講座(三九)

◇正午 (東)土曜코―너

◇午後六時 (大)國史劇

◇同六時一五分 (富)講演

◇同七時三〇分(大)歌謠

◇同一時 回心曲 指揮 河龍男 金壽男

◇同一時一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선야여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細笛 韓成俊 奚琴 金德鎭 杖鼓 池龍九

◇同一時三五分 唱劇調 一、短歌 江上에둥둥 二、唱劇調 鼓手 丁元燮 成南淑

◇同二時 野球試合實況(國語)—第十二回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重奏 와獨奏 一、五重奏 歡呼行進曲……瀨戶口藤吉作曲 二、三重奏 들려버아라……베르디作曲 三、獨唱(카라―伴奏)小夜曲……토세리作曲 四、三重奏 圓舞曲 봄의微笑……디포레作曲 五、同 마니―쉬세레나―데

十日 (日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正午 (東)時報 (大)토―커―音樂—大阪瓦斯會館公演所로부터中繼— 一、돈·코작크歌 二、아베마리아 三、故鄕歌 四、野營歌 合唱 돈·코작크合唱團 指揮 쎄게―아―로프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長谷川如是閑

◇同八時 (大)甲斐美和子

◇同八時三〇分 (大)民謠

◇同八時五〇分 漫才

◇同九時 …비제―作曲 六、五重奏行進曲『空中女王』……金大珍編曲 京城리―드소사이에티― 指揮 金大珍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普成中學 朱鍾宣

◇同八時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大笒 金花香 李月色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二五分 獨唱 一、歌劇『리골렛트』中 그리운이름…베르디作曲 • 七、미네통카니湖畔……류―란스作曲 三、小夜歌……로스리作曲 四、悲歌……마스네作曲 五、歌劇『카르멘』中 정시의노래…미제―作曲

◇同八時五〇分 —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實況—太平通朝鮮日報社講堂으로부터中繼—

◇同九時三〇分(東) 時報 뉴―

十一日 (月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오이나물』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講演『自然과親해서다』 毛允淑

◇正午 (東) 時報 (東)았코―듸온

◇午後一時 (東)管絃樂

◇同六時 (大)浪曲劇

◇六時二五分 講演(京城)

◇同七時三〇分 講演(臺北)

◇同七時五〇分 (大)日曜演藝

◇同八時二〇分 (東)、琵琶

◇同八時四五分 連續科學(東)小說

第一放送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뉴―스解說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西村眞太郞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朝鮮文字는어떠케創作되엿는가』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三九)

◇正午(東) 았코―듸온

◇午後六時(東) 唱歌

◇同六時二五分(國) 講演

◇同七時三〇分(城)라디오常識

◇同八時 管絃樂(自治劇團)

◇同八時三〇分(東) 時時

◇同八時四〇分(東) 連續科學小說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二) 宋今璇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職業紹介

◇同四時三〇分 뉴―스 童謠와童話「물은배가하는」 文 一、童話 …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時間

◇同七時 二、童話

◇同七時三〇分 뉴―스 鈴後榮

◇同八時 講演『朝鮮의家族制度』 金 鍾 泰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家庭『…』

◇同九時 一、短歌 二、唱劇調 吳太石 …

◇同九時三〇分 … 大笒 朴明月 金永根

◇同九時三〇分(東) 時報 뉴―스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뉴―스解說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一〇分 時報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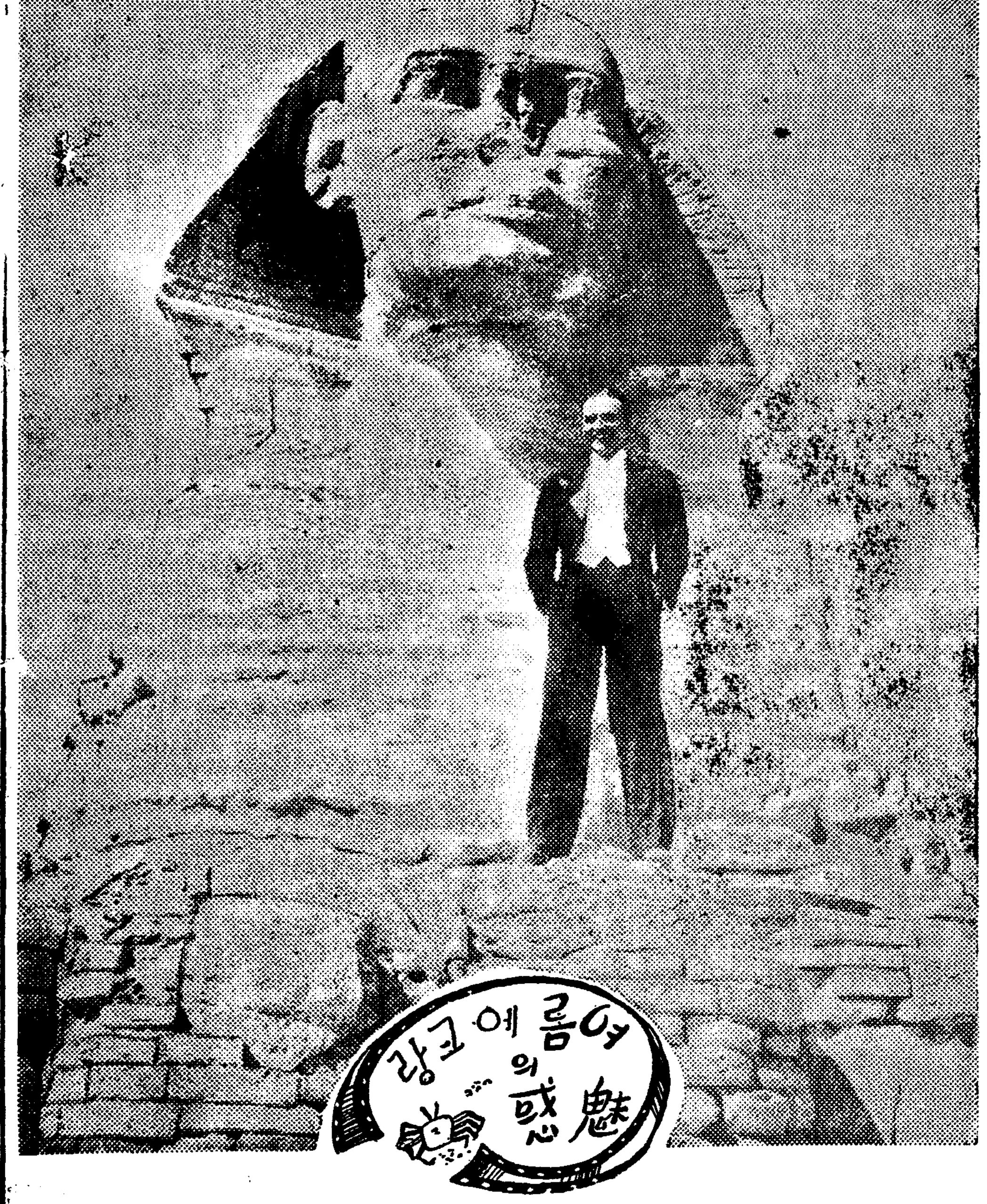
"主婦之友"主催 音樂·映畵·講演會

七十一日午後六時부터 府民館에서는 東京의"主婦之友"社主催의 讀者招待音樂映畵會가잇다는바 日活映畵와 山田와까女史의 講演과 流行歌手인"香取미어꼬"와"高杉妙子"의歌謠曲等이잇다는바 婦人에限해서 無料入場을 시키게되리라고한다

(사진은 高杉妙子孃)

千年의敎訓을말하는 藝術의塔 스핑스◇◇

毛 允 淑



風雨萬年에 우리 경건한像!

금력의 힘보다 歷史家들의 한떼를譏笑 그는詩며 思想과 藝術의 등불인人類의塔이더되 오늘은 번天地에 버진바되여 때때로 나그네의 疲困에 그무릎에 올리고 雄大한 그늘가에 적막한잠을이루게하는 善한 休息所로 도라가라

★

거저서 계신이 누구신지 모르다 그대는 스핑스의 이야기소리를 드릅니까? 殺哭도업고 성냄도업는 그의 얼굴은 당신의 생각어느부분을 회여잡읍니까?

뭉퉁 沙漠 巨大한스핑쓰아래 그리케 서섯자기 언제부터입니까! 당신은 억센 바람을혹는겨시고 광야의 고독을 사모하는 世紀의 殉覺者다 아니십니까? 당신은 북어러나는 아푸리카沙漠을 맨발로 거닐것습니까?

젓은 약대의 잔등도 빌니지안코 호자걸어 그곳에 저 어른헤다하오니 당신은 염소떼 희정을 거곳은 저ー등먼가에 엿든 한때벌을 記憶하시겟습니다

★

그풀이여 노피 날개를펴지 범피를거립니다

어스타엘의 처성소를 겨억하십니까

얼마나 황무한 歷史의 필름이엿니까 매령포의 우렁찬 군사의 고함과 말발굽에 여서 마을 흔들고 지날때 그들에게 밟피운 南方노예들의 울음呻吟은 어쩌되엿다하더이까?

나일江 물결소리는 아직도 不思의 永遠한 려듬만을안고 흐르는것일까요? 서내산은 당신게선 곳에서도 東으로 몃百里를 격해여 오를수 잇다지요 그山을 차즈시는 旅路에 잠시 거기 머믈린 서게십니까?

★

눈을감고 저기 조용히 안저게서요 거세바람에 부스러저 떠러진 스핑쓰의몸에서 千年의 엄숙한敎訓이 들려옵니다 당신을 그敎訓中에서 幸福의 色과 不幸의옥기를 차즈실줄압니다 비노니 당신은 스핑쓰가려 오래동안 사막에서게시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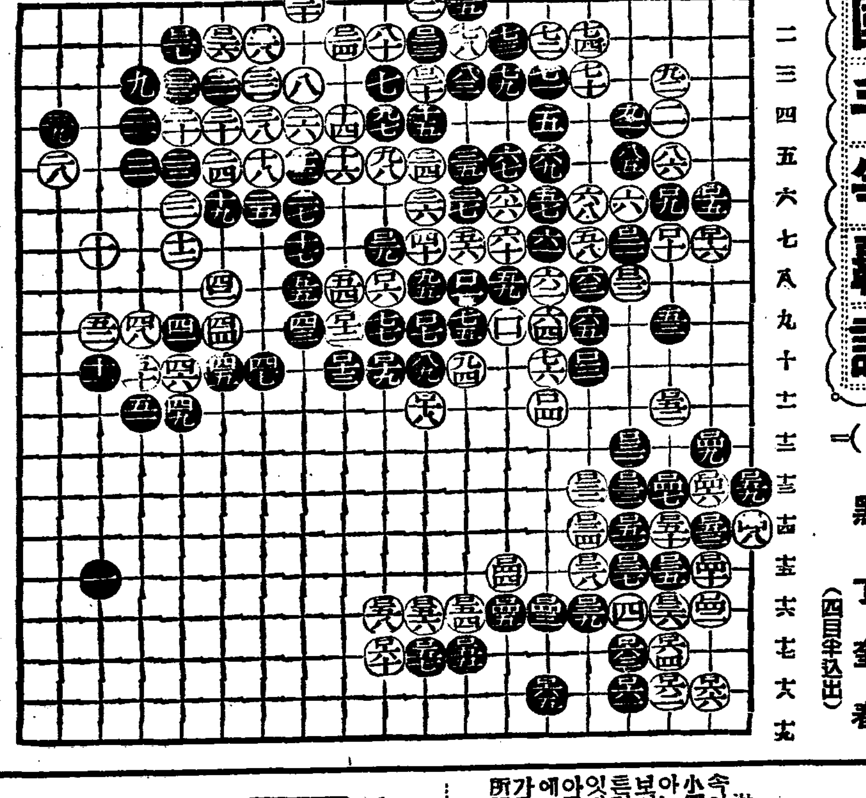
스핑쓰처럼 萬年이나 넘어 외로우시고 또그처럼괴롭어나 기렴을 無色으로 表하소서 당신은 약대도 짐노엄는 고달픈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沙漠가티 가이업시 러지고 끄러업시 넓고 노파보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永住地를 베풀고 人類의 허트러진 思想과 끈어저가는 歷史의줄을 다시 생각케할수 잇게슴니까?

(사진은 "카이로의 郊外에서" 스핑쓰아래선 "알레·고리첫"씨)

國手爭霸譜 (9)

××本社獨占××

白 權秉郁 / 黑 丁奎春 (四目半込出)



●一 丙의十三 ○二 甲의十四 ●三 乙의十二 ○四 丙의十四 ●五 丁의十二 ○六 丙의十四 ●七 丁의十一 ○八 乙의十四 ●九 辛의十六 ○十 辛의十四 ●十一 壬의十六 ○十二 壬의十七 ●十三 癸의十六 ○十四 癸의十六 ●十五 甲의十三 ○十六 癸의十七 ●十七 丁의十八 ○十八 丙의十八 ●十九 丙의十八 ○二十 己의十七 ●二十一 乙의十八

●元 劫粘 … ○ ●二 癸의四 ○三 壬의二 ●四 癸의四 ○五 壬의九 ●六 丙의十四 … ●三 丁의七 ○六 辛의二 ●六 乙의十三

前回에서 말한바와가티 白一四六 乙의一三이 右邊中央의 黑陣大馬中으로 侵入하니 黑은 어찌할줄을 알지못하야한 갓 白에게 饑死되고잇다 그러므로 黑은 애초에 어大馬를 完生해두는것이 碁法의正道가아니라할가 그러데 이제 黑一四七 丙의一三 白一四八 甲의一四 黑一四九 乙의一二 白一五〇 丙의一四 黑一五一 丁의一四 白一五二 丙의一二 의 必然한 酬應이 進行됨으로 말미암아 어大馬의 死活에關한 樹爭에 展開되니 黑軍의狼狽는 形言할수업다

그러데 이樹爭에잇서서 白一五四 辛의一六 黑一五五 辛의一七 白一五六 壬의一六 黑一五七 壬의一七 白一五八 癸의一六等의 酬應이 進行되여나

白은 끗해지 樹爭을 斷行치 안코 오직 그를利用하야 우연만한實利를 取하란 일상잇스니 어것은 白이그로이 적은일이라하면 그만이지 만은 碁道로보아서는 實로 성거운 일이다 어쩌든局勢로보면 白의 樹爭은 어樹馬와 關聯된 中央의白陣과 右邊上側의 白陣에 四五處가잇고 또 그들이 아니면 白은 萬劫不敗할形便인데 中央의白陣에 黑이樹을 쓰면 그것은 그만큼 黑에게 損일뿐만아니라 黑의그樹處는 以下의 黑三點을 包圍하는手順으로 十餘樹을 맨들수잇스니 結局 黑은 樹爭에敗하거니 그러치아니하면 下邊中央의黑軍을 白의陣營에 막기거나 그하니를 擇하지아니할수

十餘樹을 만들려고하면 白一五八을 癸의一六으로 作하야할것 은 附言할必要도 업을듯하다 그리하야 黑一五九 甲의一三 으로 乙의一三의 黑一點을取하야 樹問題가 落着되니 白一六〇 癸의一七로 下邊中央의 黑軍을 包圍하엿스니 어제 어黑軍은 生道가自在하고 그우에 그右面의白軍이 未生이므로 雙와가튼 酬應이 進行 되야 白은 先手도 빠지못하엿다 그러나 우에서 말한바와가티 下邊中央의 黑軍을包圍함으로써 中央一帶에 巨大한白地가 構築함과 함께 白勢가 크게떨쳐 中盤以來의 頹勢가 넉넉히回復되엿스니 이로써보면 黑一三九 戊의一六 의 過誤가 얼마나큰것인지를 알수잇다

白軍은御爭을謙讓코도 드듸여頹勢挽回

三 玄 子

업고 그리하야 어느것을 救하고 어느것을 바리든지 慘敗의悲運은 救할수 업게되엿슬것이다 그리고 下邊中央의 黑軍을 包圍하는 手順으로써 十餘樹을 맨들려고하면 白一五八을 ...

淋病藥

淋疾은根治식혀라 웨淋疾은잘아니낫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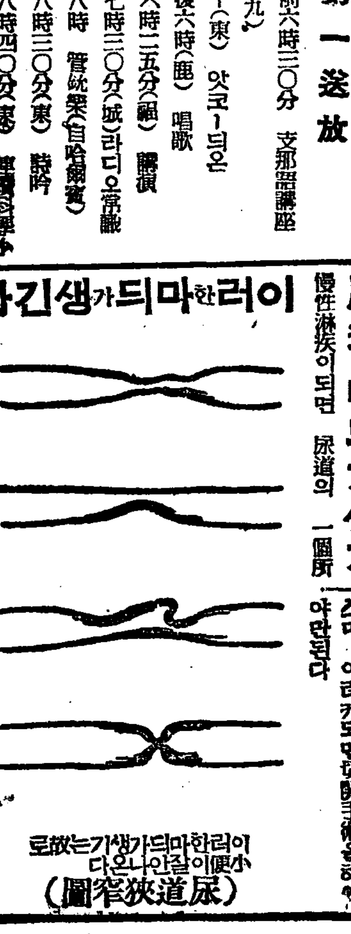
秘密病인까닭에

淋疾은 낫기가어려운가하면 秘密病이기때문에 正當한治療를 맛고 治療上에 必要한 養生法을 嚴守치못함으로 가장治療하기쉬운急性의 治療期를놋치고마는 勢를 更化케하는等 淋菌을深部로移行시키게되여 慢性이되는때문이다 慢性이되면 急性에 比하야 苦痛이 적음으로 大部分의患者는 苦痛이업스면 어질로 마음놋코 淋菌이 攝護腺部에 移行하기때문에 淋疾이 오래끌게된다 淋疾이 어렵고 治療가 오래걸리게된다

尿道에마듸가생겨

慢性淋疾이되면 尿道의 一個所에 瘢痕이 생기고 ... 尿道가 狹窄되야 小便이 잘나오지안는다 ...

이러한마듸가생긴다



(尿道狹窄圖) 小便이잘안나오는것은 이러한마듸가생기는故로

可恐할 淋菌의毒力

男子의不姙症

淋病때문에睾丸을 알케되면 一生子種을 잃어버려서 아해가 안된다

淋毒性류―마치스

淋毒이全身에미치는症狀으로서 마치스로 神經痛도誘發한다

愛兒를장님으로

나면서부터장님이되는것은大部分어 母體의淋毒感染으로생기는것이며 또淋疾患者의兩親에게서天眞無垢한兒童에 그病毒이感染되여 膿漏眼으로 失明케되는일이만타

其他淋菌이 血液中에 侵入하면 心內膜炎等을 이르키고結局은 죽엄의길을밟게되는일도잇다

재마는子宮疾患의九十%까지는淋毒에依한것으로 그結果不姙의原因을지을뿐아니라 一生苦痛의痛源 인으로지내게되는일이적지안타 子宮內膜炎、나팔관염、卵巢炎、그밖에도더危險性이잇는子宮外妊娠의大部分은淋毒에依한것이다 또淋毒性關節炎때문에나면서부터不具者가되는것은 婦人에게가장만흔것이다

最愛의妻感染된경우에

尿道淋(淋濁)을惹起함은勿論이어니와 ...

淋疾患者는如何한藥劑를選擇할것인가

內務大臣을會長

으로하는 日本藥局方改正調査會 委員으로서 日本藥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에 依해서 愼重審議한 結果 그品位를 決定하야 藥局方에 收載하고 또內務省試驗所에서 檢査封緘한藥劑가 我國藥界의 指針이되고잇다

그럼으로 우리有田드락구의淋疾藥은 政府指定、醫藥界의最高權威者選定의 日本藥局方收載、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 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해서 配劑한 許可濟治淋劑이다

服藥해서 何等의副作用업는것이本劑의特長이다

藥의有効無効는小便을보아알수잇다

淋疾患者는 여러가지療法에 속아서는안된다. 第一注意할것은 小便이다. 普通사람은 小便을 곱부에 바다보면 실오라기가튼것과 잡티가 뜨는것이 또기도하고 가라안기도해 잇다 그것이 淋絲이다. 아무리 藥을먹고 注射를하고 실오라기와 가튼 淋絲가 곳減하지안는藥은 所用업다

그럼으로 小便을보고 淋絲가 업서지는藥은 먹다안하면 안된다 藥이有効 하면 淋絲도減하고 알효과도 업서지고 膿도 끈키서 全快의 目的을 達하게되는것이다

淋疾患者는 여러가지廣告에속지말고 有田도락구專賣所를차지라

有田ドラッグ專賣所

京城 郵便局前 龍山練兵町 平壤 泉町二 釜山 幸町一 群山 驛前通 全州 高砂町 光州 本町三 木浦 榮町二 太邱 弓町 馬山 京町三

麗水 港町 浦項 本町 兼二浦 本町 鎭南浦 漢頭里 海州 南本町 新義州 櫻町 元山 本町三 咸興 軍營通一 羅南 生駒町 興南 上天機里